

NEXEN TIRE
we got you

2026년 사보 표지는 더넥센유니버시티 중정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푸른 잔디의 중정이 스케이트장으로 멋지게 변신을 했죠?
상상의 나래를 펼쳐니, 중정이 웃음 가득한 겨울 놀이터로 바뀌었네요.

숨은그림찾기 EVENT!

표지 속 풍경 곳곳에는 사보 '헬로우 넥센'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몇 권의 사보가 숨겨져 있을까요?
신년호 사보와 함께 찍은 인증사진 &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이 그림 찾기!



• QR코드를 스캔해서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HELLO NEXEN

2026 WINTER vol. 102

NEXEN TIRE



NEXEN TIRE MAGAZINE

HELLO NEXEN

2026 WINTER VOL. 102

숨은그림찾기 이벤트! ✨
뒷 표지 참고

CONTENTS

2026 WINTER VOL.102



24

- 04 **2026 MESSAGE**
새해를 여는 우리의 소망,
넥센인들의 2026 버킷리스트
- 08 **썸 스틸러**
팀원과 리더의 동반 성장기로 체크해 보는
우리의 리더십
- 14 **일잘러의 실전 노트**
2025 퍼플어워즈 주역들!
빛나는 노력과 결실로 만나다
- 20 **넥센다움을 찾아**
우리의 업무 DNA를 통해
'넥센다움'을 알아볼까요?
- 24 **팀빌딩 프로젝트**
완벽한 팀원은 없어도 완벽한 팀은 존재한다!
SHE담당 벨빈 진단



www.nexentire.com



본 사보의 표지 및 내지는
FSC® 인증 종이를 사용하였습니다.

2026 WINTER (통권 102호)
정보간행물 신고번호 양산, 바00008 신고일자 2016년 9월 29일
발행인 강호찬 발행일 2026년 1월 2일 발행처 경남 양산시 충렬로 355 넥센타이어(주)
담당 인재개발팀 전재갑 팀장, 신혜리 선임 기획 및 출판 (주)대통기획 02-2269-3613
ISSN 2765-2904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넥센타이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을 재사용하려면 <헬로우 넥센>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STATION 1

- 30 **TIRE TECH**
최신 설비로 세심하게, 맞춤 서비스로 친근하게!
타이어테크 안정점
- 34 **우리 부서 파이팅!**
동료애와 팀워크를 키우는
스페셜한 간식이 배달되다?!
- 38 **CSR 1**
3.65kg로 채우는 36.5°의 온기,
연탄 나눔 봉사
- 40 **CSR 2**
양산공장이 실천한 이웃사랑과 지역 상생
& 창녕공장이 함께한 지역사회 나눔의 기록
- 44 **좋은 넥센인 도감**
우리가 만난 좋은 선배와 후배들
좋은 넥센인 도감 VOL.1



38

STATION 2

- 50 **문화 생활 캘린더**
2026 트렌드 키워드와 맞춤형 문화생활!
- 54 **AI 인사이트**
AI로 진화하는 2026 이동의 미래
- 58 **럽럽 패밀리**
소중한 가족에게 전한 특별한 케이크
- 62 **보디 시그널**
신발 밑창이 알려주는 내 몸의 균형
- 64 **K-CULTURE**
요즘 K-컬처, 어디서 놀고 뭘 들고 나오나 봤더니
- 68 **ISSUE 1**
34년 연속 무분규 성과로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 70 **ISSUE 2**
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분임조 수상
- 72 **ISSUE 3**
2025 머니투데이 IR 대상 최우수상 수상
- 73 **ISSUE 4**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연계
산학협력 프로젝트 추진
- 74 **ISSUE 5**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자동차 동호회 초청 행사
- 76 **NEWS**
주요 뉴스로 돌아보는 2025년
- 81 **한 장 놀이터**
자동차 만들기 챌린지 이벤트



50

새해를 여는 우리의 소망!★

새해에는 누구나 마음 한편에 새로운 희망 하나쯤은 품게 된다. 누군가는 더 단단한 커리어 성장을, 누군가는 변함없이 건강한 일상을, 또 누군가는 오래 미뤘던 소소한 취미를 시작해 보기를 꿈꾼다. 2026년을 맞이한 넥센인들도 올해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버킷리스트'를 작성했다. 신년호의 첫 페이지인 <2026 Message>를 통해 넥센인들의 마음속 소망들을 함께 공유하며 우리 모두가 새해 첫걸음을 더욱 힘차게 내딛길 바란다.

넥센인들의 2026 버킷리스트



새로운 언어 습득하기

매년 하는 결심이지만 새로운 외국어를 익혀서 해외에서 원활한 소통을 하고 싶어요!

국제협력파트 김홍철 파트장

가장 행복한 나의 모습 찾기

입사와 취업 시기를 지나오면서 저는 '앞으로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앞만 보고 지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긴 했지만,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볼 여유는 거의 없었죠. 그러다 오랜만에 시간이 나서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 벽에 걸어두었는데, 볼 때마다 뿌듯함과 함께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저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제 버킷리스트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저를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순간들을 조금씩 찾아보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SCM전략파트 김지우 사원

자차 장만하기!

입사 후 통근 버스로 출퇴근을 무리 없이 하고 있지만, 올해는 꼭 자차를 구매해 출퇴근 시간을 보다 자유롭게 쓰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CP품질관리팀 김유빈 사원



자격증 취득하기

2026년 한 해 나에게 필요한 자격증 1개 취득을 목표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의 목표를 세워두고 도전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CP공무팀 (CP)정비계 김성훈 사원

침대에 가장 오래 누워있는 MBTI 1등 ISFP!

제가 그 ISFP입니다. 침대를 너무 사랑해서 퇴근하고 침대를 만나러 가기 바쁜 제가 아무래도 지속적이고 건강한 회사 생활을 위해선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계속해 왔는데요. 2026년 새해에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운동을 꼭 시작하려 합니다! ISFP인 저에게 퇴근 후 집으로 가지 않는 일상은 꽤 큰 결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이 목표를 이루어내겠다는 결심으로 지난 12월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시작이 반이라고 부디 2026년 연말까지 꾸준히 이어지길 바랍니다.

품질경영팀 김미정 사원



책 3권 읽기

'읽든지 짧고 간단하게!' 드라마도 요약된 유튜브로 보면서 스킵을 하는 등 쇼츠에 중독된 듯한 상태입니다. 최근 활자로 된 책을 읽은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인내심을 기르고 싶어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빼기 어려워져 분기별로는 권씩이라도 읽어보고자 합니다.

(CP)환경안전팀 정주희 사원



친구 찾아, 미국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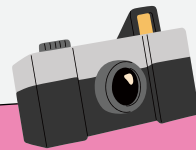
오랜 친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아이를 낳은 뒤 벌써 7년 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끼리도 만나게 해주고, 저 역시 친구와 그동안 쌓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간다, 간다' 하다 보니 어느새 7년이 훌쩍 지난 만큼, 이번엔 꼭 떠나보려 합니다!

Infra운영팀 김문태 책임

바디프로필 도전

지난해 건강을 위해 3개월 동안 달리기를 꾸준히 하다보니 8kg이 쏙 빠졌습니다. 달리는 기쁨과 다이어트의 성취감이 너무 좋아서 올해 계속 달리기 위한 작은 목표로 바디프로필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CP생산관리팀 (CP)TPM파트 김종호 파트장



통장 만들어 가족과 여행가기~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다 보니 살도 찌고, 효도도 제대로 못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만 원씩 입금하는 1년짜리 '만 원 통장'을 만들어 배달 음식도 즐기고, 연말에는 가족들과 일본 여행도 가고 싶습니다.

CP생산관리팀 (CP)원자재관리계 김건호 사원



여자친구 사귀기

결혼 14년 차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며칠 전 아내가 갑자기 "우리 사귀래?" 하고 물어보더니,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오늘부터 1일이야"라고 장난을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자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사랑하는 아내이지만, 저만 바라보며 지금껏 함께해 준 아름다운 한 명의 '여자'를 잊고 지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옛날 연애 때의 간질간질함과 설렘만큼은 아니겠지만 다시 한번 두근두근하게 만들어 주고 싶네요!

제품평가팀 YP제품평가계 이영남 사원



친구 같은 아빠가 되기

딸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며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느낍니다. 예민한 이 시기를 딸아이가 방향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고객만족실 유민 책임



가족 마라톤 대회 5km 완주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한 취미를 공유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2026년에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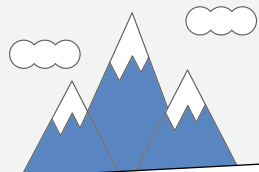
OE해외영업팀 김명권 책임



블랙야크 100대 명산 완등하기

2004년 입사 후 넥센타이어 산악회에 가입해 여러 산을 다녔지만 언젠가부터 음주 가무를 우선시하는 시절을 보냈는데요. 40대 중년이 되다 보니 젊었을 때보다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걸 몸소 느꼈고, 2021년부터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47곳의 100대 명산을 정복했고, 등산을 하며 쓰레기를 좁는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반드시 남은 곳을 정복하여 그 지역의 아름다운 산세를 느껴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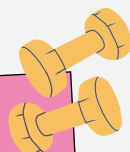
YP생산2팀 생산지원계 정중식 조장



9kg 빼기

나잇살과 덜 부지런함으로 인해 늘어난 몸무게! 9kg 감량 후 앉자리를 바꿔 더 가볍고 경쾌한 삶을 만들고 싶어요.

영업1팀 성남권역 이종철 파트장



동료와 함께 좋은 시간 나누기

저희 둘은 평소 취미가 같아 시간을 내서 같이 등산을 자주 했는데요! 지난 11월 전라도 광주 무등산 등반에 나섰습니다. 처음 오르는 무등산이라 산세를 알 수 없어 긴장되고 힘들었지만, 동료와 함께 오르니 힘든 것도 잊고 즐거운 산행을 했습니다. 코스 중간에서는 겨울이 오지 않은 듯 늦은 단풍이 맞이해 주었고, 이후 코스부터는 눈이 오기 시작해 다양한 계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전라도 광주에 첫 눈이 오는 날이어서 취재를 나온 SBS(KBC 광주방송) 취재진을 마주쳐 짧은 인터뷰를 했는데 무척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가 8시 뉴스에 나오게 되어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2026년도 동료와 함께 더 좋은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CP품질검사팀 박성만·문동인 사원



언더Under에서 원더Wonder로!

신인감독 김연경



팀원과 리더의 동반 성장기로 체크해 보는 우리의 리더십

레전드 선수였던 먼치킨(압도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캐릭터) 리더가 그라운드 바깥에 있던 언더독 선수들을 이끌면 어떻게 될까? 최약체로 시작한 팀의 극적인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리얼리티형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 <신인감독 김연경>은 약자로 분류됐던 선수들의 도전기와 20년의 선수 경력 김연경이 신인 감독으로 거듭나는 여정을 담고 있다. 이 여정을 통해 각 개인이 진정한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관찰하고, 우리의 리더십을 체크해 보자.

배구 황제 김연경의 구단 창설 프로젝트

국내 4대 프로 스포츠인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중 유일하게 2군 시스템이 없는 종목이 바로 배구다. 1부 리그에 속하지 못한 선수들이 뛸 수 있는 2부 리그가 없기 때문에 주전이 아닌 원업존 선수들은 기회도 얻지 못한 채 V-리그 무대에서 사라지기도 한다. <신인감독 김연경>은 팀에서 밀려나면 은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배구 선수들을 위해 국내 8번째 프로구단 창단을 목표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2009년 일본 최하위팀 JT마블러스 입단 후 팀 창단 첫 우승, 배구 강국 튀르키예에서 페네르바체 구단 팀 최초 유럽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한 '언더독 전문가' 김연경이 나섰다. 여기에 프로 무대에서 방출된 선수, 실업팀 선수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합류해 팀 원더독스가 결성됐다. 팀 원더독스는 7경기 중 5승 2패, 71.4%의 승률로 끝내 목표였던 과반승을 달성하고야 만다. 이들이 매회마다 펼친 경기에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요소와 구성원으로서 기억해야 할 내용을 되짚어보자.



MEMBER POINT 1

다양성을 살리면 강점이 된다

팀워크란 '동일한 조건과 실력'이 아니라, 역량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인정하고 보완할 때 만들어진다. '원더독스' 팀원들은 나이와 출신 팀, 은퇴·방출 이력 등의 배경부터 경기 스타일과 장단점 등의 역량까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한 팀이 되어 도전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각자가 쌓아온 경험에 따라 좁히기 어려운 여러 가지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다채로운 이력이 오히려 팀의 정체성과 가능성이 됐고, 각자의 경험과 시각으로 서로를 보완하는 하나의 팀으로 성장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속한 조직의 구성원이 제각각의 모습에 공통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가능성의 씨앗'일 수 있다.



MEMBER POINT 2

부족함을 숨기지 않을 때 빠르게 성장한다

'원더독스'는 처음부터 완성된 팀이 아니었다. 프로 무대에서 방출된 선수, 프로 진출을 꿈꾸는 실업팀 선수, 은퇴 후 다시 코트를 밟으려는 선수 등 화려한 경력보다 '다시 도전하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뭉친 이들이었다. 이들은 초반 훈련에서부터 부족한 점을 숨기지 않았다. 리시브가 약한 선수는 스스로 약점을 말했고, 경기 감각이 떨어진 선수는 도움을 요청했다. 기본기부터 다시 점검하며 프로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 선수들에게 '못하는 것'은 평가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고쳐야 할 과제'가 됐다. 이 솔직함은 문제를 빨리 발견하게 하고 성장의 속도를 높였다. 김연경 감독 역시 여러 인터뷰에서 "경험 부족에서 오는 실수가 있지만, 인정하고 고치려는 모습이 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MEMBER POINT 3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과정의 의미'

프로그램 5회에서는 일본 고교 팀과의 한-일전에서 접전을 펼치지만 아쉽게 역전패를 당한다. 하지만 그 후 패배를 분석하고, 실점을 되짚는 단계를 거친다. 김연경 감독은 개개인과 의 면담을 통해 멘탈 회복을 돕고 전략 수정을 시도했다. 선수들 또한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다. 실패 후에 찾아오는 시간을 성장의 과정으로 만든 것이다. 당시 상황을 회상한 담당 PD는 "역전패를 지켜보면서 스텝들은 멘붕 상태였고, 경기가 끝난 뒤 밤새 일본 호텔 로비에서 대책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팀 구성원 CHECK! CHECK!

- ☐ 팀원 간 나의 부족한 점을 솔직하게 공유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가?
- ☐ 나의 시행착오를 팀에 솔직하게 공유한 적 있는가?
- ☐ 완벽한 리더를 기대하기보다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가능한가?
- ☐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팀원을 이해하고자 하는가?
- ☐ 팀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LEADER POINT 1

‘성장 가능성’을 전제로 한 피드백

14명의 선수 중 몽골 출신의 선수 ‘인쿠시’는 올라운드 포지션인 ‘아웃사이드 히터’로 방 송 초반 김연경 감독의 아픈 손가락이었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가파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청자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광주여대와의 시합을 앞두고 훈련을 진행 하던 중, 김연경 감독이 인쿠시를 독려한 순간은 명장면으로 꼽힌다. 한 일전 패배 등 마 음처럼 되지 않는 플레이에 자신감을 잃었던 인쿠시에게 김연경 감독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 너 자신을 크게 생각하라”며, “마인드 세팅을 익스큐스(변명)에서 솔루션(개선 책)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큰 선수가 된다.”라고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조언한다. 이후 인쿠시는 광주여대와의 경기에서 성장된 모습을 보여줬으며, 2024-2025 시즌 프로 통 합 준우승 팀인 ‘레드스파크스’와의 경기에서도 강한 공격 능력을 뽐내면서 ‘힘쿠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LEADER POINT 2

해결책을 제시하는 ‘솔루션 리더십’

김연경 감독은 첫 시합에 앞서 받고 때리는 모든 것을 시스템 화한 전술책을 제작해 전술 훈련부터 돌입했다. 선수들의 경 기 데이터를 놓고 무한 회의도 이어 나갔다. 본 경기 때는 “최 선을 다하라”는 두루뭉술한 주문보다 서브할 때 공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상대의 블로킹을 어느 손으로 막을지 등 상황 별 솔루션을 세세하게 알려주며 구체적인 기술 피드백을 제 공했다. 팀원들이 실수를 반복할 때도 그는 긴 설명보다 “서브 타점 낮춰”, “지금은 길게 보고 천천히”처럼 단 한 문장으로 방 향을 제시했다. 이 짧은 메시지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바로 고 쳐주고, 팀 전체의 플레이 리듬을 안정시켰다. 긴 선수 생활 동 안 피부로 쌓은 경험을 필요한 순간마다 빠르게 꺼내 즉각적 이면서도 상세한 ‘해석과 지시 능력’을 발휘한 것이다. 그의 리 더십은 선수들이 감독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LEADER POINT 3

“해냈어!” 우리가 함께!

11월 프로그램 종영 후에도 ‘필승 원더 독스’ 정식 창단과 시즌2 제작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지고 있다. 매회 경기 결 과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든 ‘언더독의 반 란’이 실제 상황이라는 점에서 강한 몰 입감을 선사했다. 이들의 도전과 성장 은 프로그램을 벗어나서도 끝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배구라는 한정된 영역 을 넘어, 우리가 일터에서 마주하는 다 양한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준다. 다양한 팀원과 리더가 모 여 함께 성장통을 겪으며 성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의 미 있는 승리의 순간을 매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란다.



팀리더 CHECK! CHECK!

- ☐ 구성원의 실수와 감정을 ‘문제’가 아닌 ‘데이터’로 보고 있는가?
- ☐ 내가 모르는 영역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 ☐ 팀원의 장점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 ☐ 피드백을 구체적이고 즉시 제공해 팀의 성장 속도를 높였는가?
- ☐ 실패 상황에서도 팀원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방향을 잡아주었는가?

2025 퍼플어워즈 주역들! 빛나는 노력과 결실로 만나다



Go, Best 대상

하나의 타이어로 세단 & SUV 모듈을 움직이는 신기술

프로젝트의 시작과 혁신적 성과

2022년까지 소수의 BMW 프로젝트에만 참여해왔던 상황에서, 노이어 클라쎄는 넥센타이어에게 처음으로 플랫폼 단위로 협업할 수 있는 기회이자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과제는 분명했습니다. One Spec, Multi Use, 하나의 타이어로 최대 6개 차종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세단과 SUV는 무게중심과 주행 거동 특성이 달라, 하나의 타이어로 여러 차종의 성능을 맞추는 기술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BMW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노이어 클라쎄가 요구한 새로운 기준에 대응해 단일 스펙 기반의 다차종 대응 기술을 구현했고, 그 결과 23개 차종·30규격 전량을 조기 승인(100%)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특히 1규격 다차종 개발과 조기 승인을 통해 표준 개발 시간과 비용 대비 약 75%를 절감했으며,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넥센타이어는 BMW와 미래 혁신을 함께 논의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2025 퍼플어워즈는 넥센타이어 구성원들이 한 해 동안 축적해 온 수많은 도전과 그 안에 담긴 과정을 조명하는 자리다. Go, Best 부문에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총 3팀이 수상했으며, Try Again 부문에서는 공동 우수상 3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참여자

해외OE개발1팀 권정욱, 전석호 / PlatformTire개발팀 임은모 / OE개발기획팀 정태식 외 17명

수상 소감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하나의 타이어로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이 반복되던 초기 단계였습니다. 세단과 SUV는 요구 성능이 달라 단일 규격은 쉽지 않았고, BMW 측과 내부에서도 차종 분리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환점은 플랫폼 관점에서 구조를 다시 정의하고 조향 성능을 핵심 축으로 설계를 재정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1규격으로 최대 6개 차종을 커버하고, 23개 차종·30규격을 조기 100% 승인받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크기보다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PM과 엔지니어 간의 긴밀한 소통이 개발 효율을 높여 시간을 75%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은 결국 팀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경험이었습니다.



Go, Best 최우수상

설비 한계를 넘어, 생산 유연성을 설계하다

프로젝트의 시작과 혁신적 성과

이번 프로젝트는 내/외부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생산 능력(Capa)을 높이고, 설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과제에서 출발했습니다. 미국 관세 영향으로 특정 제품(NS-TBM)의 수주가 부족하였고, 동시에 EU 관세 이슈로 인해 기존 QP 규격 제품을 YP 생산 체계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맞물렸습니다. YP 생산 환경이 다양한 성형 설비를 운영함에 따라 제품 유형(Type)별 생산 전환이 쉽지 않았고, 내/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생산 효율을 높일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성형 설비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비별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그 결과 공장 운영 손실(Loss) 감소, 생산 규격 수 축소, 생산 속도 개선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참여자

YP생산기술팀 이상훈 / RE개발1팀 고윤규 / RE개발2팀 최영수 / M Spec TFT 이화태, 허진 / IOP 활민석

수상 소감

이번 프로젝트는 노후 성형기 철거 및 신규 성형기 증설, 미국 관세로 인한 NS 성형기 수주 부족 해결, 그리고 EU 관세로 인한 QP 규격의 YP 이전이 맞물리며 바쁜 한 해였습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여러 팀과 선·후배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도전을 통해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수상은 이번에 제가 하게 되었지만, 내년에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노트

성형 설비, '전환'이 아니라 '호환'으로 풀다

YP 성형기의 노후화로 인해 성형기 철거(MHI-TBM) 및 신형 성형기(VMI, LT) 증설이 필요했습니다. 기존에는 한 설비가 한 가지 용도로만 사용되는 운영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설비를 새로 증설하는 대신, 기존 성형 설비를 서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하나의 설비에서 여러 제품을 함께 생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 설비로 인한 효율 저하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차종에 대응할 수 있는 전·호환 사양(306규격)을 발행해 생산 대응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EU 관세 영향으로 필요한 QP 규격의 YP 이전 생산(36규격)을 병행하며, 해외 생산 환경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생산 관점의 전환! 규격을 줄이고, 속도를 높인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생산해야 할 제품 규격 수를 줄이고, 생산 속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규격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Mold(금형)를 확대 적용하고, 시제품 제작이나 시험 생산(PILOT) 단계를 과감히 생략해 불필요한 공정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준비에 걸리는 시간과 절차를 줄이면서, 전체 생산 주기(Cycle)를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형기 전환 생산을 통해 공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던 비효율을 줄였고, 유관부서 협업을 통해 혼합 생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설비 활용도와 생산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렸습니다.

프로젝트 노트

One Spec, 기술적 난제를 풀다

하나의 타이어로 여러 차종을 만족시키기 위해, 개발의 핵심을 조향 성능 최적화에 두었습니다. BMW의 신기술 요구사항을 반영한 OE개발과 플랫폼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구조를 공동으로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플랫폼 관점의 타이어 설계 개념을 도입하여, 차종별 특성 차이를 포괄할 수 있는 공통 구조를 정립했고, 이를 기반으로 플랫폼 설계를 표준화했습니다.

플랫폼 관점! 노이어 클라쎄를 위한 기술 적용

또 하나 새로운 접근은, 노이어 클라쎄 전용 요구사항에 맞춘 새로운 기술을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프로파일 개선, Thin tread 구조, 레이스 기술을 적용한 사이드 구조 최적화 등 신규 설계를 반영해 요구성능을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PM과 Automotive Engineer 간 기술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며, 개발 전반을 플랫폼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혁신 성과 point

- 23개 차종 / 30규격 승인
- 개발비 75% 절감
- 규격 통합: 2 → 1
- OE 납품 100만본+

혁신 성과 point

- 205 → 전·호환 사양 발행
- 36규격 이전 생산 완료
- 101규격 호환 생산 안정화
- 공장 Loss 감소 & 생산 효율



Go, Best 우수상

가류 Mold, 전산 일치화 해결을 위한 TFT 운영 혁신

참여자

생산기획팀 박진배, 윤혜린 / YP생산관리팀 이상민 / CP생산관리팀 김호준 / QP생산관리팀 이한동 / EP생산관리팀 박유진 / G.MES팀 성상경 / ERP팀 장정호 / PLM팀 김지은

프로젝트의 시작과 혁신적 성과

이번 프로젝트는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에 주안점을 둔 프로젝트입니다. 가류 Mold는 수십년간 전산에 등록되어 관리되었으나 영업 환경 변화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Mold 전산 정보가 실제 Mold와 맞지 않으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리콜 위험이 발생했고, Mold를 해외 이전 시 ERP code가 매번 바뀌어 실제 현장에 존재하는 Mold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겹치면서, 단순 오류 대응을 넘어 전사 차원의 관리 체계 정비에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가류 Mold 전산 일치화를 위해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TFT를 구성하고, 시스템-프로세스를 함께 정비해 Mold 관리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수상 소감

Mold TFT는 여러 부서가 동시에 얹힌 과제로, 주관 부서를 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세 차례 전사 회의가 반복되도록 리더를 정하지 못하던 순간, 처음으로 스스로 손을 들었습니다. 즉흥적인 선택이었지만, 한 번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싶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구성원들과 함께 해답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를 성과로 증명할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누군가는 첫걸음을 내딛고, 누군가는 도전을 이어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전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Try Again 우수상 1

화학물질 관리, 프로세스 재정립을 통한 관리 체계 개선

참여자

SHE담당 심재범, 이미은, 김영민, 이예진, 장재훈, 이현식 / CP환경안전팀 오세두, 이인걸, 김은영, 노홍수, 전유영, 이근희, 이병호, 이시윤 / YP환경안전팀 김병주, 안성완, 김찬호, 변성욱, 김진우, 문재호, 엄지환

프로젝트의 시작과 혁신적 성과

이번 프로젝트는 화학물질 관리 프로세스의 구조적 한계에서 출발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화학물질과 관련된 행정 처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2024~2025년에는 카메이커 심사에서도 지적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화학물질 관리가 각 단계별 담당 부서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이슈 발생 시 유관부서 간에 수시로 또는 사후에 대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화학물질 관리 전반을 재검토하고, 프로세스 기반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절차 개정부터 현장 적용, 관리 Tool을 자체 제작하며 관리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로 넥센타이어 현장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적 로드맵을 실현해 나갈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수상 소감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양상과 창녕, 두 사업장의 '다름'을 하나로 잇는 과정이었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현장 환경과 프로세스가 달라 통합과 표준화에 많은 논의가 필요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든 담당자들이 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절차를 완성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헌신과 책임감을 느껴 큰 보람을 얻었습니다. 이번 도전은 단순한 리스크 저감을 넘어, 우리 회사만의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경험이었습니다. '완벽'보다 '성장을 만드는 도전'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노트

문제의 본질은 'Mold'가 아니라 '관리 체계'

과거 Mold 전산화를 구축했을 때와는 영업 환경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Mold는 3가지 정보(패턴, 사이즈, 몰드 번호)로 구분되는데 해당 정보가 일치하면 동일한 몰드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패턴명이 다른 제품도 동일한 몰드에서 생산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Mold를 해외 이전할 때마다 매번 ERP code가 바뀌는 것입니다. Mold는 1개임에도 여러 개의 code를 가지고 있다 보니 동일 Mold라는 사실을 추정할 뿐입니다. 추정이 혁신으로 바뀔 때까지 불필요한 확인과 검증을 반복하다 보니 업무 가중은 물론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MZ'세대에 맞춘 TFT 소통 전략

전산 등록, 활용, 폐기 등 Mold의 Life cycle 관리는 각 부서 리더보다는 실무 담당의 역할이 큼니다. 다양한 부서와 직급, 다른 경험치의 직원들이 Mold를 관리 중이며 대다수가 MZ세대입니다. MZ세대의 경우, '이해'와 '가치'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프로젝트 과정 중에 내용을 이해하고,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부각했습니다. 디지털 소통에 익숙한 상황을 고려하여 TFT는 온라인으로 진행해 실시간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불변의 기준으로 Mold 전산 체계 재정립

지난해 4월 WeNEX가 새롭게 시작됐지만 기존 문제를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TFT에서는 변경되지 않는 고유 code 기준을 도입하고, WeNEX code로 전산 체계를 통합·간소화했습니다. ERP팀 신입사원이 낸 아이디어가 중요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제 Mold는 고유의 WeNEX code를 가지며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해당 번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목적인 가류 Mold-전산 일치화를 이뤘습니다.

혁신 성과 point

- 퍼즐 같은 **Mold 정보**를 모든 시스템(NEPS, WeNEX, MES) 간 실물 일치화
- 각 공장 Mold 창고 **capacity와 현황 실시간 제공**
- **실무 담당의 직접 참여**로 Mold관리 업무 내재화
- 지속가능한 **경영활동 기반 강화** (관세 대응 Mold 이전, 각인 누락 품질 리스크 방지, 자산 투명성 제고)

프로젝트 노트

절차 개정과 관리 Tool 제작을 통한 체계화

화학물질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 절차 개정 TFT를 추진했습니다. SHE 담당 부서를 주축으로 현업 작동성을 반영하여 환경안전팀과 협업 체계를 구축했으며, 관련 절차를 재정비했습니다. 특히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전수 조사를 바탕으로 공장 입고 물질과 MSDS 관리 리스트의 일치 여부를 자동으로 구현 가능한 Tool을 자체 제작하여 데이터 정합성을 확보했습니다.

잠재적 'Human Error'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 보완 과제 수립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사법 리스크는 최소화하였으나 수기 관리 방식에 따른 'Human Error'의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부서간 관리 범위와 주체가 모호하다는 점을 파악하여 '부서간 책임 구조 명확화'를 최우선 개선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단계에서부터 MSDS가 확보되지 않아 공장 입고 후 인력 망에만 의존해야 했던 점, 원재료 코드가 정보별로 분류되지 않는 점 등을 핵심 보완 사항으로 도출했습니다.

시스템 기반 관리 체계로의 전환

전사 화학물질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리스크 Zero를 재도전 목표로 삼아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관리 실행력 확보를 위해 부서별 책임과 권한을 명확화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화학물질 개발-구매-입고-생산-폐기 단계별 체크포인트를 표준화하고, 나아가 국내외 사업장을 아우르는 전사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구축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임직원의 건강 확보를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혁신 성과 point

- 행정 처분·과태료 발생 **구조 원인 도출**
- 화학물질 관리 절차 전면 **개정 및 표준 매뉴얼 구축**
- **MSDS 관리 Tool** 제작 및 현장 적용
- **화학물질 관리** 누락 방지 시스템 기반 구조 확보



Try Again 우수상 2

Trade-off, 비대칭 타이어 구조를 통한 성능 보완

참여자

PlatformTire개발팀 원준근 / 패턴NVH팀 정건

프로젝트의 시작과 혁신적 성과

이번 프로젝트는 친환경 트렌드 확산에 따라 RR(구름저항, 연비와 직결), 핸들링, NVH(소음·진동·승차감) 등 복합 성능 요구가 동시에 증가하는 상황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존 타이어 구조에서는 성능 간 Trade-off(한 성능을 개선하면 다른 성능이 저하되는 상충 관계)가 명확해, 하나의 성능을 개선하면 다른 성능이 저하되는 한계가 반복되었습니다. 비대칭 패턴과 세부 튜닝을 통해 일부 대응해왔지만,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비대칭 타이어(안쪽·바깥쪽 패턴이 다른 구조 타이어) 개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기존 대칭 구조설계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비대칭 구조를 적용해 성능 보완 가능성을 확인하는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수상 소감

이번 프로젝트는 설계 톨도, 생산 설비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된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이었습니다. 특히 생산팀의 도움을 받아 직접 반제품을 만들고 공정에 투입돼 시제품을 세팅하던 하루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완성된 타이어로 성능 평가를 진행해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는 순간, 그 모든 고생이 값진 투자였음을 실감했습니다. 이번 도전을 통해 시스템의 부재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배웠고, 시도하지 않았을 뿐 불가능한 길은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기술 옵션을 하나 더 넓혔다는 점에서 연구 원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Try Again 우수상 3

NVH 예측, AI 학습을 활용한 타이어 성능 예측 시도

참여자

OE개발기획팀 황성욱, 김광선, 현승호, 양소영 / M Spec TFT 김규명 / 한국OE개발팀 윤준현 / 패턴NVH팀 한진혁 / 실차평가팀 서영욱

프로젝트의 시작과 혁신적 성과

이번 프로젝트는 NVH(주행 중 소음·진동·승차감 성능) 연구 범위 확대 필요성에서 출발했습니다. NVH 성능은 차량의 정숙성과 승차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기존에는 시험·분석 중심으로 접근해 개발 후반부에 확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타이어 개발 단계에서 NVH 성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석·예측하기 위해서는 AI 기반 접근 방식 확대가 필요했고, 특히 패턴 노이즈(트레드 패턴 반복으로 발생하는 특정 주파수대 소음)와 로드 노이즈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타이어 사이즈와 구조 인자를 학습하는 AI 모델을 구축해, NVH 성능 예측 가능성을 확인하는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수상 소감

NVH 예측 톨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는 학습에 필요한 타이어 데이터를 찾고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막막했지만, 부밍·공명음·럼블음 등 NVH 요소를 하나씩 이해해 가며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이 점차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이러한 예측 프로그램이 있다면 실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확신도 생겼습니다. 또한 평가 시점에 따라 결과 편차가 발생하는 한계를 Reference 타이어 기반의 민감도 분석으로 보완하며,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AI 성능의 핵심은 결국 데이터의 신뢰도라는 점을 다시한 번 깨달았고, 실제로 르노코리아와 포드 프로젝트에서 성능 예측에 활용되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고객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프로젝트 노트

문제의 본질은 ‘성능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Trade-off’

초기 분석 결과, RR-핸들링·NVH 성능은 서로 영향을 주는 구조적 관계에 있었으며, 기존 설계 방식으로는 Trade-off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기존 비대칭 구조에서는 설계·생산·시험·분석 전반에서 새로운 접근이 제한돼 있었고, 성능 개선을 반복해도 유사한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대칭 비드필러 구조 설계(비드필러의 높이를 다르게 설계한 구조) 적용 가능 항목을 발굴하고, 구조 중심의 비대칭 설계 변경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차량 기준 타이어 내측과 외측 분리 설계를 통한 성능 검증과 한계 확인

비대칭 비드필러 적용(비대칭 비드필러 높이를 적용한 1차 설계)을 추진하며, RR 성능을 유지한 상태에서 Inside와 Outside(타이어 안쪽과 바깥쪽)의 역할을 분리하는 설계를 시도했습니다. Inside 영역은 진동 성능 개선을 중심으로 강화했고, Outside 영역은 핸들링 성능 확보를 목표로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진동·조향 측면에서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Inside 강화 시 진동 성능 우위, Outside 강화 시 핸들링 우위라는 특성을 도출했습니다. 다만, 타이어 유니포미티(균일성) 측면에서 고속 주행 조건에서의 안정성 및 내구(장시간) 사용 시 구조 안정성 성능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비대칭 구조 설계 적용을 통한 ‘Try again’

비대칭 비드필러 구조 설계를 포함하여 사이드월 보강재 비대칭 구조 설계 등 다양한 시각으로 성능 Trade-off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칭 구조 설계를 실제 제품에 적용하여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타이어를 만들기 위해 ‘Try Again’ 하겠습니다.

혁신 성과 point

- 비대칭 비드필러 구조 적용 검증
- RR 성능 유지 조건에서 핸들링 혹은 NVH성능 분리 설계 시도
- 타이어 안쪽과 바깥쪽 역할 분리 기반 성능 특성 확인
- Trade-off 보완을 위한 비대칭 구조 설계 방향 도출



프로젝트 노트

문제의 본질은 ‘분석 부족’이 아니라 ‘예측 시점’

초기 검토 결과, NVH 성능 자체를 측정·분석하는 기술은 충분했지만, 설계 이전 단계에서 예측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저주파 영역의 소음은 차량 조건에 따라 영향도가 달라 기존 방식으로는 예측이 어려웠고, 개발 후반에 문제를 인지해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NVH 성능을 사후 분석 대상이 아닌, 사전 예측 대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명확해졌습니다.

AI 학습을 통한 NVH 성능 예측 가능성 검증

프로젝트에서는 인공 신경망(ANN) 모델을 구축해, 타이어 사이즈와 구조 정보를 입력값으로 학습시키고 로드 노이즈를 출력값으로 설정했습니다. OE 타이어 12개 사이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했으며, 학습 결과를 토대로 NVH, 중량, 강성, 코너링 성능을 예측하는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설계 단계에서 기획안 수준의 성능 예측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NVH 성능을 설계 초기부터 고려할 수 있는 접근 가능성을 도출했습니다. 다만, 차량 변경 시 예측 정확도 차이가 발생하는 한계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혁신 성과 point

- ANN 기반 NVH 성능 예측 모델 구축
- 타이어 사이즈·구조 인자 학습을 통한 로드 노이즈 예측 시도
- OE 타이어 12개 사이즈 데이터 기반 학습 수행
- 설계 단계 NVH 성능 사전 예측 가능성 확인



우리의 업무 DNA를 통해 ‘넥센다움’을 알아볼까요?

● 참여자 총 369명
● 참여기간 12월 8일 ~ 12월 11일

늘 함께 일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는 생각보다 잘 모를 때가 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법, 관계를 여는 태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는 힘까지!
이번 설문을 통해 넥센인의 작은 습관과 일하는 방식 속에 숨어 있던 넥센다움을 발견하고자 한다.



할 일 정렬(우선순위 정리부터)	45%
청사진(완성 그림부터 떠올림)	22.3%
자료 수집(데이터 기반으로 준비 작업부터)	16%
리스크 체크(모든 문제 가능성 미리 캐치)	8.2%
먼저 실행(작게라도 바로 시작)	6.3%
기타	2.2%

비슷한 업무 경험이나 타사 사례를 먼저 떠올리며 검토한다.
김재영

"이걸 왜 하는지, 어떤 결과가 필요할지"부터 생각한다.
이규채

이 일은 내가 해야 한다고 스스로 최면을 건다.
송민석



넥센인 업무 시작 D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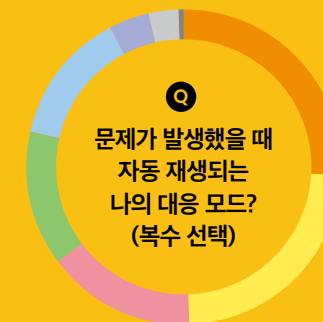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밀그림부터 그려야지!

새로운 업무 앞에서 넥센인들은 확실히 나무보다는 숲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다. 응답의 절반 가까이가 '우선순위 정리 (45%)'를 선택했고, 그 뒤를 '청사진 그리기(22.3%)'가 따랐 거든. 이 두 가지는 모두 "일단 전체 그림부터 잡고 순서대로 움직이자!"라는 성향이 드러나는 선택이야. 즉, 넥센인은 일을 시작할 때 단편적인 업무 조각보다 흐름·방향·맥락을 먼저 세우는 스타일이라는 뜻이지. 여기에 '자료 수집(16%)'까지 더해지면, 전체적으로 "조급하게 뛰어들지 않고, 정확한 판단을 위한 준비부터 하는 사람들"이라는 조직의 색깔이 잘 드러나지.

문제 해결 넥센인 DNA

바로 뛰고 파고드는 액션 추적 듀얼모드

문제가 터졌을 때 넥센인의 모습은 꽤 멋있어. '즉각 대응형(43.9%)'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걸로 봐서 넥센인은 일단 먼저 뛰어들어 상황을 진정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야. '원인 추적형(39.8%)'도 거의 비슷하게 높게 나왔다는 건, 단순히 급한 불만 끄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 게다가 '절차 중시형(25.7%)', '침착 제어형(23%)', '콜라보형(23%)'까지 골고루 섞이면서, 넥센인의 문제 해결 방식은 빠른 실행 + 차분한 분석 + 팀워크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즉각 대응형(빠르게 행동! 응급조치 먼저)	43.9%
원인 추적형(문제의 근원부터 천천히 꼼꼼하게 찾기!)	39.8%
절차 중시형(급할수록 FM으로! 상사에게 보고 먼저)	25.7%
침착 제어형(감정 차단! 객관·사실 파악해 이성적 대응)	23%
콜라보 전략형(전문가나 동료 호출해 효율적 대응)	23%
우회 해법형(정면 돌파 대신 판을 바꿔 새로운 방법 찾기)	7.1%
독립 처리형(혼자 해결해야 마음이 편해)	5.2%
기타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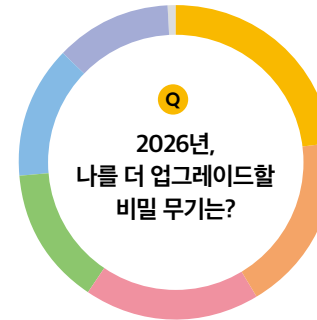


관찰(말보다 표정과 분위기 읽기)	44.2%
공감(공정의 리액션으로 호응하기)	19.3%
유머(웃음으로 금방 친해지기)	11.5%
협업(함께할 거리 빠르게 찾기)	6.3%
리드(주도적으로 대화 이끌기)	5.2%
칭찬(좋은 점부터 발견하기)	3.7%
기타	3%
업무 외적으로 필요한 부분 행여주기 조희상	상대가 어색하지 않도록 말투, 속도, 주제를 조절한다. 김동우
가벼운 질문으로 공통점을 찾는다. 김보은	출퇴근 방법이나 MBTI 같은 가벼운 주제로 먼저 말을 건다. 정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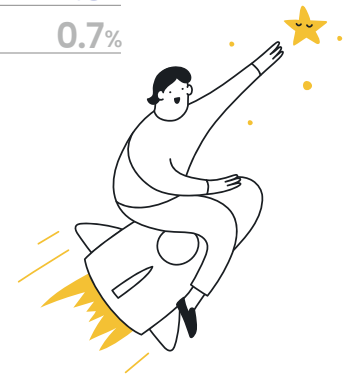
넥센인 관계 맺기 DNA

말보다 센서 발동! 일단 분위기 스캔부터

가장 높게 나타난 응답이 '관찰(44.2%)'이라는 건, 넥센인들이 새로운 사람을 대할 때 급하게 친해지려 하거나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기보다, 상대의 표정·반응·에너지를 먼저 살피면서 거리를 조절한다는 뜻이야. 이게 소극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식에 가까워. 여기에 '공감(19.3%)', '유머(11.5%)'가 고르게 등장한 건 흥미로운 포인트. 결국 넥센인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되, 따뜻함은 잃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전문성(한 분야를 깊고 날카롭게! 스페셜리스트)	21.2%
확장 학습(게을리하지 않는 배우의 의지)	16.7%
도전(실패는 또 다른 성장 스토리, 경험은 스펙)	16.4%
회복탄력(꺾여도 휘어도 다시 일어서기)	13%
관계(시너지가 최고의 치트키)	12.3%
효율(덜 하고 성과는 더 내기)	10.8%
기타	0.7%



넥센인 성장 DNA

깊이+배움+도전, 삼각부스터로 버전업!

넥센인의 성장 키워드를 보면, 진짜 성실하고 단단한 사람들이라는 게 느껴져. '전문성(21.2%)', '확장 학습(16.7%)', '도전(16.4%)'이 나란히 상위권이거든. 이것만 봐도 넥센인은 "더 잘하기 위해 계속 배우고,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사람들"이라는 게 보이지. 단순히 성장 욕구가 큰 게 아니라, 깊이와 폭을 동시에 키우려는 균형 잡힌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야. 또 회복탄력이나 관계 역량을 선택한 사람들도 적지 않아서, 넥센인의 성장은 개인의 실력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방식과 마음의 힘까지 포함된 '넓은 의미의 성장'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



완벽한 팀원은 없어도 완벽한 팀은 존재한다!

SHE담당 벨빈 진단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당사의 안전보건 전담조직으로 출범한 SHE기획팀이 SHE담당으로 새로운 출발을 했다. 새 도약을 앞두고 시너지를 한층 높일 방법을 고민하던 중 사보의 벨빈 진단 이벤트에 주목했다. 팀 내에서 각자가 맡고 있는 역할과 강점을 얼마나 명확히 알고 있을까. SHE담당 팀원들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각자의 역할을 탐색하고, 2026년 최대의 팀 시너지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 뛰어난 성과를 내는 팀은?

뛰어난 성과를 내는 팀을 살펴보면,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진 구성원들이 균형을 이루며 일한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빈틈을 채우고 단점을 보완하며 팀 전체의 성과를 끌어올린다. 이번 벨빈 진단을 통해 SHE담당 팀원들은 자신이 팀 내에서 자연스럽게 발휘하는 행동 패턴을 확인하고, 그 행동이 팀 성과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봤다.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팀에서 어떤 역할과 행동을 하는지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신청해 봤어요. 나의 행동이 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팀을 대표해 벨빈 진단을 신청한 김영민 수석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 벨빈 진단이란?

벨빈 진단은 개인이 팀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진단은 [창조자] [냉철판단자] [전문가] [실행자] [완결자] [추진자] [지휘조절자] [분위기조성자] [자원탐색자] 까지 총 9가지 팀 역할을 기준으로 팀의 균형을 분석한다. 메러디스 벨빈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는 팀은 이 역할들이 팀 내에 모두 존재하며 균형을 이룬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한 명이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특징이다.

🎯 객관적 진단으로 드러난 SHE담당 팀 시너지

이번 벨빈 진단에는 SHE담당 팀원 6명이 참여했으며, 사전에 자가진단과 함께 동료들이 설문하는 관찰자 평가를 모두 완료했다. 팀 내 개인의 역할과 함께 각자의 강약점이 담긴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팀원 전체의 역할 분포를 살펴볼 수 있는 팀 보고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사는 “수많은 팀의 진단을 진행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진단지를 작성한 팀은 처음”이라며, 팀원들의 높은 몰입도와 의지에 감탄했다.

팀원들은 결과지를 통해 자신이 인식한 본인의 역할과 동료들이 바라본 역할을 비교하며 공감하거나 의외의 지점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민 수석은 “내가 생각한 내 역할과 팀원들이 평가한 나의 역할이 일치하는 부분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 흥미로웠어요. 정확한 분석을 통해 강점과 보완점을 알게 돼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개인을 넘어, 팀의 구조를 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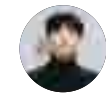
과거 한국 조직이 친밀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통해 팀워크를 다져왔다면, 오늘날 팀워크는 다른 기준에서 해석된다. 일하는 방식이나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각기 다른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융합하고 상호 의존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강사는 “관점이 비슷한 사람들로만 구성된 팀이 아니라, 다양성을 가진 팀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별빈 진단은 특별히 ‘서로의 약점이 다른 팀원에 의해 보완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팀원들은 각자 팀 내에서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단어 9가지 중 1순위와 9순위를 선택해 각각 다른 색의 포스트잇에 이름을 적어 서클에 부착했다. 이를 통해 팀의 강·약점 분포를 시각적으로 한눈에 확인했다.



‘함께’ 만들어가는 ‘이상적인 팀’

SHE담당은 [분위기 조성자] [자원 탐색가] [실행자] 역할을 하고 있는 팀원이 비교적 많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반면 [지휘조절자] [추진자] [완결자] 역할은 상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팀원들은 결과를 보며 “그래서 우리 팀 분위기가 좋았구나”, “타 부서와의 관계가 원활한 이유가 있었다”며 분위기 조성자로서의 강점을 공감했고, 목표를 향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실행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서로를 칭찬했다. 동시에 일부 역할의 부재가 업무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실제 업무와 연결해 논의하며, 각자의 약점을 어떤 팀원이 보완해줄 수 있을지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사는 “개인 역량과 협력의 강점은 살리고, 보완점을 채워나간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진단은 서로 다른 역할이 불편함이 아닌 필수 요소임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SHE담당은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강점을 더욱 발휘해 완벽한 팀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MINI INTERVIEW



장재훈 선임

무엇보다 저의 강약점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팀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이미은 수석

팀이 신설된 지 만 세 달이 넘어가고 있어요. 3명은 기존 멤버지만 3명은 외부에서 온 멤버라서 적절한 시점에 서로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김영민 수석

팀원들 모두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뿌듯합니다. 오늘 결과를 바탕으로 팀원 개개인의 강점을 살려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예진 책임

팀원들을 서로 관찰하는 항목은 예민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걱정 했는데요. 다행히 서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잘 받아들이고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의논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이현식 사원

객관적이고 다양한 분석법을 통해 팀 내에서의 제 역할을 알 수 있게 되어 추후 업무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심재범 담당

오늘의 진단 결과를 참고해 업무를 할 때 잘 활용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또한 팀원들끼리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STATION 1

새해에는 우리의 앞길에 새로운 기회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의 한 걸음이 작아 보여도 결국 꾸준함은 우리를 가장
멀리 데려다줍니다. 올해는 그 꾸준함 위에 더 큰 용기와
더 넓은 상상력을 얹어보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맞춤형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실천하고 있는
타이어테크 안성점의 열정, 팀원들과 함께한 특별 간식 타임,
마곡과 양산, 창녕에서 펼쳐진 따뜻한 사회공헌 활동 그리고
넥센인이 생각하는 좋은 선후배의 모습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30
TIRE TECH

34
우리 부서 파이팅!

38
CSR 1·2

44
좋은 넥센인 도감

타이어는 무엇보다 안전, 생명과 연결되는 제품인 만큼 고객은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타이어테크 안성점의 구성원 점장은 타이어와 자동차에 대한 애정과 탐구심을 바탕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타이어 전문 매장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신 설비로 세심하게, 맞춤 서비스로 친근하게!

타이어테크 안성점



타이어테크 안성점 네이버 블로그

다양한 고객을 만나는 안성점의 출발선

안성 제2·3산업단지에서 안성시청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자리한 타이어테크 안성점은 지난 9월 문을 연 신생 매장이다. 산뜻한 외관과 최신 설비, 그리고 20대 구성원 점장의 밝은 에너지가 매장의 첫 인상을 만든다. 공단과 주택가가 인접한 입지 덕분에 고객층은 폭넓다. 자동차 관련 매장이 밀집한 환경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차별화된 서비스와 안성점만의 경쟁력을 더해 선택받는 매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발로 뛰는 소통, 좋아서 더 잘하는 일

다양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구성원 점장은 직접 움직인다. 인근 주유소와 세차장, 수리점을 찾아 명함을 건네고, 네이버 블로그에는 타이어 교체 사례를 꾸준히 기록한다. 타이어의 특성을 공부하는 것은 물론, 고객의 운전 습관과 성향까지 세심하게 살핀다. 자동차, 그 중에서도 선택의 폭이 넓은 타이어에 대한 애정은 그의 가장 큰 무기다. 친근한 제품부터 고성능, 스포츠·오프로드용까지 아우르는 넥센타이어의 스펙트럼 속에서 고객에게 꼭 맞는 선택을 찾아주는 일은 그에게 도전이자 즐거움이다.

고객 유치 Point



- 발로 뛰는 지역 밀착형 영업
주변 주유소·세차장·수리점과의 교류를 통해 신뢰 관계를 쌓고 고객 접점 확대
- 사례로 설명하는 신뢰 있는 정보 전달
실제 교체 사례를 네이버 블로그에 꾸준히 공유해 고객이 미리 확인 가능
- 진심 어린 태도
성실함을 앞세워, 끝까지 책임지는 응대가 재방문으로 이어짐
- 최신 설비
오픈 초기 매장답게 깔끔한 환경과 최신 장비로 빠르고 정확한 작업 제공



차별화된 서비스 Point



- 한 단계 더하는 무료 관리 서비스
타이어 광택제 도포부터 녹 제거 방청제 처리, 엔진룸 청소까지 차량 컨디션을 종합적으로 관리
- 전문성과 편안함을 겸비한 상담
고객의 차량 상태와 사용 목적을 고려한 맞춤형 추천, 부담 없이 질문할 수 있는 친절함 상담 분위기
- 레이싱 메카닉 경력에서 나오는 작업 속도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면서도 안정적인 작업 진행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 신뢰의 출발점

타이어테크 안정점의 주 고객은 넥센타이어 서비스를 찾는 온라인 예약 고객이다. 특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기 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렌탈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다. 본사의 안정적인 서비스와 채널 홍보 덕분에 신규 매장도 빠르게 고객과 만날 수 있었고, “처음엔 온라인 예약 고객이 대부분이었지만, 한 번 방문한 고객이 다시 찾는 매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장의 말처럼 재방문 고객도 점차 늘고 있다.

“사실 안정점 점장이 되기 전까지는 타이어와 자동차 관련 일을 하는 것이 그저 즐거웠어요. 운 좋게 점장이 될 기회가 왔을 때, 매장 운영에 도전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실제로 해보니 내 매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재밌고, 특히 저의 서비스에 만족하며 돌아가는 고객을 보면 더 많은 고객을 만나 더 큰 만족을 드리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요. 장기적으로는 직원도 늘리고 설비도 더 다양하게 갖추고 싶습니다.”



타이어테크 안정점 | 안성맞춤대로 848 | 031-675-5444



세심함을 더해, 다시 찾고 싶은 매장으로

구성완 점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타이어 교체의 ‘기본’이다. 최신 장비로 휠 손상 없이 작업하고, 네 바퀴의 밸런스를 꼼꼼하게 맞춘다. 여기에 타이어 광택, 녹 제거와 방청, 엔진룸 청소까지 무료로 더해 차량 상태를 한층 끌어올린다. 전문적이면서도 편안한 상담, 레이싱 메카닉 경력에서 나온 빠른 작업 속도 역시 안정점의 강점이다. 온라인 리뷰에는 승차감 개선과 세심한 상담, 쾌적한 매장 환경에 대한 호평이 이어진다. “내 서비스를 경험하고 만족해 돌아가는 고객을 보면, 더 많은 고객에게 더 좋은 경험을 주고 싶어진다”는 그의 다짐처럼, 안정점은 기본 위에 세심함을 더하며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겨울철 차량 정비 포인트 & 타이어 관리법



한 박자 빠른 엔진오일 점검
엔진오일은 기온이 낮아지면 점도가 높아져 오염이 빨라질 수 있다. 한 박자 빠르게 점검해 두어야 안심!



브레이크 벨트와 디스크 점검 필수
길이 미끄러워지면 브레이크 밟을 일이 많아진다. 제동력은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브레이크 벨트와 디스크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눈길 운전 후에는 하부 세차
눈길에 뿌리는 염화칼슘은 차량과 타이어를 부식시킨다. 눈길을 달린 뒤에는 하부 세차로 염화칼슘을 씻어내자!


동료애와 팀워크를 키우는 이벤트 출출한 3시, 스페셜한 간식이 배달되다?!





힘찬 2026년을 다짐하는 자리로 푸짐한 간식이 배달됐다. 팀을 생각해서 이벤트를 신청한 동료의 마음이 고맙고, 작은 것에 크게 기뻐하는 팀원들이 고마워 서로에게 웃음을 선물하는 시간이었다. 특별한 간식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순간을 담아왔다.

오늘의 작은 관리가 내일을 만든다

CP환경안전팀

 이벤트 신청자
CP환경안전팀 김보은 사원

 간식 메뉴
닭강정, 떡볶이, 호두과자

 팀 미션
팀의 파이팅 문구를 적어주세요!

Q CP환경안전팀을 소개해주세요.

저희 팀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소방관리자, 환경기술인, 간호사, 물리 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직군이 함께 협업하는 부서로, 공장 내 안전·보건·환경을 책임집니다. 작은 리스크도 놓치지 않기 위해 법규 검토, 현장 모니터링, 직원 교육 등을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Q 간식 이벤트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파트가 함께 협력하는 부서인 만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 간식 배달 이벤트를 통해 맛있는 간식을 함께 나눠먹으며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팀워크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벤트에 신청했습니다.

Q 팀원들과 함께한 간식 타임의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팀원들과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고 팀워크가 한층 더 단단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시간을 종종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Q 2026년 팀원들이 바라는 CP환경안전팀의 모습!

저희 환경안전팀은 '오늘의 작은 관리가 내일의 안전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개선과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분위기가 밝은 CP환경안전팀! 지금처럼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고, 웃을 수 있는 분위기를 오래 유지하는 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넥센타이어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YP환경안전팀

이벤트 신청자
YP환경안전팀 길찬호 책임

간식 메뉴
피자, 스파게티, 버팔로링

팀 미션
팀의 파이팅 문구를 적어주세요!

Q YP환경안전팀을 소개해주세요!

저희 팀은 양산공장 근로자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책임지는 YP환경안전팀입니다. '안전', '환경', '보건', '소방'의 네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키는 최전방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Q 간식 이벤트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YP환경안전팀은 공장의 심장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팀원들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다시 한 번 끈끈한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 이벤트에 신청했습니다.

Q 팀원들과 함께한 간식 타임의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간식 이벤트에 당첨되어 팀원들 모두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바쁜 업무 중 잠시나마 현장의 긴장감을 놓고, 팀원들이 좋아하는 피자를 함께 나눠 먹으며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 팀원 간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었는데, 덕분에 모두 더 힘차게 안전을 지키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2026년 팀원들이 바라는 YP환경안전팀의 모습은?

저희 팀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 공장의 모든 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대재해 zero, 화재사고 zero, 환경사고 zero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YP환경안전팀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3.65kg으로 채우는 36.5°의 온기 연탄 나눔 봉사

‘연탄’은 여전히 누군가의 난방 수단이자, 삶의 버팀목이다. 2025년 10월 밥상공동체복지재단·연탄은행이 발표한 ‘2025년 전국 연탄 사용가구조사 결과 및 제언’에 따르면 2025년 연탄 사용 가구는 5만 9,695가구다. 2018년 당시 한 장에 800원이던 연탄 가격은 지난해 950원가량으로(지역별로 상이) 인상되면서 이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지만, 연탄 후원 수량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을 통해 2020년부터 연탄을 후원 중인 넥센타이어의 봉사 현장을 통해 따스한 온기를 전한다.

어느덧 6회째를 맞은 연탄 나눔 봉사 현장은 넥센인들의 따뜻한 마음만큼 훈훈했다. 구로구의 한 동네를 찾은 넥센인 14명은 장갑과 토시, 앞치마까지 아무지게 착용하며 연탄을 나를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모두 자발적으로 지원해 나선 이들도. 오늘의 목표인 연탄 1,500장을 총 네 가구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원 분배가 필요하다. 한쪽에 쌓여 있는 연탄을 건네주는 사람, 나르는 사람, 집 안에 들여 놓는 사람까지 손발이 잘 맞아야 한다. 연탄 한 장의 무게는 3.65kg. 2장을 겹쳐 한 번에 옮긴다. 손에서 손으로 옮겨지는 연탄의 수만큼 넥센인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금세 차올랐지만, 밝은 웃음소리와 틈틈이 주고 받는 담소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6년간 넥센타이어 임직원 총 90명은 31개 가구에 7,900장의 연탄(약 28,835kg)을 전했다. 이 연탄 나눔은 단순한 사회공헌이 아니라, 이웃에게 향하는 따뜻한 관심의 표현이다. 3.65kg 연탄 한 장에 담긴 이 마음은, 이웃들이 한겨울의 추위에도 36.5°의 온기를 유지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MINI INTERVIEW



OE개발기획팀
안지민 사원

오늘 날씨가 매우 따뜻해서 진행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자리가 있으니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G.MES팀 DX파트
김상기 사원

이전에도 참여하고 싶었지만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요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연탄을 직접 들어보니 생각보다 무거워서 놀랐고, 어르신들이 들기에는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지난 회사에서 진행한 농촌봉사활동도 참여했었는데, 좋은 일은 할수록 중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눔으로 더욱 풍성해진 시간 양산공장이 실천한 이웃사랑과 지역 상생



햇고구마, 햅쌀 나눔 행사

지난 11월 19일, 양산 공설 운동장 부근에서 양산시 취약 계층 가구에 햇고구마 10kg 400박스 와 햅쌀 5kg 400포대를 나누는 행사가 진행됐다. 임직원이 다함께 행사를 준비하여 더욱 보람 찬 시간이었으며, 작게나마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참여자 모두 마음 따뜻한 시간이었다.

지역사회 농촌 일손 돕기 봉사

양산시 농촌 방문 봉사를 통한 지역사회 교류의 목적으로 양산 공장 임직원이 콩 수확 일손 돕기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단순한 일손 돕기를 넘어 지역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넥센타이어 임직원과 주민들이 함께 웃고 땀 흘리며 서로 돕는 소중한 자리였다.

노사가 함께한 양산시장애인복지관 기부금 전달

연말에는 기부를 통한 나눔도 이어졌다. 지난 12월 11일 넥센타이어 희망나눔미 봉사회(회장 박경만)는 양산시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넥센타이어 희망나눔미 봉사회는 양산공장 임직원 170여 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조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특별히 이번 기부금 전달 행사는 노사가 함께했다. 이번 기부금은 지역 내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양산공장 직장회 양산시노인복지관 기부금 전달

지난 12월 19일 양산공장 직장회는 양산시노인복지관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 지원에 힘을 보탰다. YP직장회는 오윤식 직장(회장)과 최기동 직장(총무)을 중심으로 매년 연말 자발적인 나눔 문화를 실천하며,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연말, 이웃을 향한 마음이 이어지다 창녕공장이 함께한 지역사회 나눔의 기록



2025 나눔주민축제

지난 11월 11일, 창녕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주최한 '나눔 주민축제'에 창녕공장 임직원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직원들은 행사 주차요원, 부스 운영 지원, 청소, 장애인 활동 보조, 안전관리, 배식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원활한 행사 진행을 지원했다. 현장은 따뜻한 정과 웃음이 넘쳐나 나눔의 가치가 가득한 자리였다. 특별히 이번 봉사를 통해 임직원들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실천하고 나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김장나눔 축제

지난 11월 24일 창녕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주최한 '김장 나눔행사'에 함께했다. 이번 봉사에서 임직원들은 김장 담그기와 포장 작업에 직접 나섰다. 현장은 웃음과 훈훈함으로 가득했다. 서로 협력해 함께 완성한 김치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뿌듯함을 맛보았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손끝에 담긴 정성은 겨울을 준비하는 이웃들에게 든든한 위로가 되었다.

CJ프레시웨이와 함께한 지체장애인복지관 무료배식 봉사

지난 12월 16일에는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임직원 9명과 CJ프레시웨이 직원 2명, 총 11명이 인근 지체장애인복지관을 찾아 무료배식 봉사를 진행했다. 몸이 불편해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직접 배식하고,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함께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따뜻한 밥 한끼에 담긴 진심에 감동을 받은 어르신들은 재차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곁에 서는 것이 진정한 나눔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만난 좋은 선배와 후배들

좋은 넥센인 도감 vol.1

서로의 일상을 밝히는 것은 거창함보다 작은 배려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선배와 후배는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넥센인들이 직접 답했습니다. 마음에 오래 남은 좋은 선배·후배의 모습들을 모아 ‘좋은 넥센인 도감’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넥센인 01

낯설고 어색한 순간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새로운 환경에 처하면 누구나 낯설고 어색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 건넨 작은 한마디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구나’를 느끼게 합니다.



POINT 팀 적응 속도가 2배 빨라지는 이유! 신입을 살려주는 생명의 손길

좋은 넥센인 02

팔로 팔로미! 팀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료

부탁이 오기도 전에 가 있고, 누가 시키기 전에 움직이는 당신!
일이 영키기 전에 실타래를 먼저 푸는 사람입니다.



POINT 팀 공기를 미세하게 환기시키는 인간 공기청정기! 같이 있지만 해도 든든한 자양강장제~

성장할 기회를

남겨 주는 사람

정답을 대신하지 않고 스스로 답을 만들게 도와주는 사람.
내 의견을 먼저 묻고, 실수해도 배움의 기회로 바꿔주는 동료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실수했을 때 “괜찮아, 이걸 모두가
한번쯤 겪는 일이야”라며 무력감 방지

“어디 부분이 어려워? 같이 보자”
라고 안내하기

일 부탁할 땐 “중간에 궁금하면 언제든지 말해”
라며 숨 쉴 공간 확보

잘했을 때 “이건 네 덕분에 됐어”
라며 성과의 주인공 만들어주기



POINT 같이 일하면 실력도 멘탈도 성장! 실수도 학습으로 바꾸주는 성장 메이트

사내 곳곳에서 도착한 ‘고마움의 목소리’



개발지원팀 CP개발지원계 서용준 사원
늘 세심하게 챙겨주고 마음을 써주는
선배 덕분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 따뜻함을 보며, 저 역시 그런 선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Thanks for

김수철 윤리경영부장

YP환경안전팀 길찬호 책임

신입 시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긍정적인
직업윤리로 후배인 제게 본명한 본보기가 되어주었습니다.

노사협력팀 (YP)인사지원파트 조미오 책임

사원 시절 같은 팀 선배로부터 박용현 작가의 《책은 도끼다》를
선물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10년이 지나 다시 읽으며
책을 통해 좋은 깨달음을 얻게 해주신 선배님께 감사합니다.

Thanks for

CP공무팀 (CP)원동예 임윤섭 소장

CP공무팀 원동파트 이광일 사원

낯선 환경에서 가장 먼저 손 내밀어주신 임윤섭 선배님 덕분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일과 삶 모두 진심으로 조언해 주시는 진짜 좋은 선배이며,
오래도록 곁에 두고 싶은 분입니다.

Thanks for

OD품질팀 공영국 책임

한국고객만족실 유민 책임

입사 후 현장에서의 대처 방법을 몸소
알려주신 공영국 책임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Thanks for

YP품질검사팀 (YP)검사-1 천경수 소장

YP공무팀 설비보전1파트 이도형 사원

신입 시절 먼저 밥 먹자고 손 내밀어
주신 한 선배님이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소한 배려가 큰 힘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YP품질검사팀 탁세원 책임

발령 후 낯선 환경에서 업무부터
생활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신
천경수 소장님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 형처럼
든든하고 따뜻한 선배입니다.

Thanks for

Infra운영팀 임재준 사원

Infra운영팀 김문태 책임

같은 시기에 입사했지만 누구보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임재준 사원은 든든한
후배입니다. 요청하면 늘 기꺼이 도와주며,
어려운 상황에서는 두 팔 걷고 나서주는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함께 있을수록
믿음이 커지는 동료입니다.

Thanks for

제품평가팀 CP제품평가파트 백하린 사원

CP품질관리팀 김유빈 사원

팀은 다르지만 같은 공간인 연구동 2층에서 함께 오가며
업무적인 부분을 공유하면서 힘이 많이 되어주었습니다.

Thanks for

CP생산관리팀 (CP)원자재관리계 김병기·이명준 사원

CP생산관리팀 (CP)원자재관리계 김건호 사원

항상 먼저 환하게 인사해주는 김병기 사원과 이명준 사원을
칭찬합니다. 배려가 몸에 밴 두 분의 태도는 팀 분위기를
밝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을 닦고 싶습니다.

Thanks for

마케팅업무팀 유재훈 책임

원료개발팀 강민욱 선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직장 선배로 만난 인연도 특별한데,
회사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소중한 분입니다.

개발지원팀 YP개발지원파트 정진석 파트장

후배에게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셨던 한 선배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현실적인 조언과 진심 어린
배려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분입니다.

STATION 2

새해 첫 아침 창가로 스며드는 빛처럼,
2026년 신년호가 여러분의 하루를 밝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의 감각을 흔들 2026 문화생활 트렌드,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달한 케이크 이벤트,
그리고 상상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AI 기반 모빌리티 기술의 진화까지!
새해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몸이 보내는 섬세한 신호를 체크하는 건강 정보,
다양한 K-컬처를 만나볼 수 있는 핫플레이스와 굿즈 소개,
묵묵히 한 해를 채운 2025 넥센타이어의 결산 소식까지 더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환기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50
문화 생활 캘린더

54
AI 인사이트

58
럽럽 패밀리

62
보디 시그널

64
K-Culture

68
ISSUE

76
NEWS

81
한 장 놀이터

2026 트렌드 키워드와 맞춤형 문화생활!

2026년의 문화생활은 한층 더 새롭고, 대담해질 예정! 일상의 작은 순간을 채우는 색다른 즐거움부터, 익숙한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힙함'까지. 올해 상반기에는 어떤 새로운 즐거움과 발견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미리 만나볼까요?

Feel-Economy



“기분이 곧 소비가 되는 시대”

트렌트 코리아가 2026년 키워드로 제시한 '필코노미'는 '기분(Feel)'과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감정과 기분에 따라 소비하는 현상을 의미해요. 이제는 자신의 감정적인 만족과 심리적 안정이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기능·효율보다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들을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와 같은 소비가 어느새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흐름이 되고 있답니다!

CHECKLIST

- ☒ 기분 전환을 위한 감성적인 아이템 구입하기
- ☒ 먼길을 마다하고 힐링되는 분위기, 예쁜 공간 찾아가기
- ☒ 일상에 영감과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전시·공연 즐기기



“글 읽고 쓰는 당신, 꽤 힙하네요?”

숏폼과 자극적인 콘텐츠가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시대. 이제는 오히려 한 줄의 문장, 한 편의 글에 담긴 깊은 울림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한때 고리타분하게 느껴졌던 독서와 글쓰기가 이제는 MZ세대 사이에서 '힙한 취미'로 재조명되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자 문화적 트렌드로 자리잡게 되었죠. 이렇게 요즘 세대들은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 취미를 즐깁니다. 느릿하게 여유를 만끽하는 것도 '힙함'으로 소화하며 힐링과 평온함을 느끼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CHECKLIST

- ☒ 독서모임, 북클럽에 활발하게 참여하기
- ☒ 블로그 등 SNS에 일상 기록하기
- ☒ 손글씨·필사·다꾸(다이어리 꾸미기)에 도전하기

Text-Hip



필코노미 만족 100% 전시 추천!

<히무로 유리 오늘의 기쁨>

전시 기간 2025.10.3 ~ 2026.3.29

장소 그라운드시소 한남

특징 우리 일상 속 가까이 있지만 미처 몰랐던 '오늘의 기쁨'을 텍스트일 아트로 만나보세요. 숨을 불어넣으면 천의 색이 변하기도, 가위질을 따라 숨겨진 무늬가 새롭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최초 공개되는 신작도 만나볼 수 있어요!



한글의 힙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전시 추천!

<제5회 한글실험프로젝트 '글(자)감(각): 쓰기와 도구'>

전시 기간 2025.11.19 ~ 2026.3.22

장소 문화역서울284 RTO | 주최·주관 국립한글박물관

특징 '쓰기-도구-행위'로 이어지는 과정을 다각도로 풀어낸 전시예요.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도구를 감각으로 전환하여 신체, 기능, 물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적 시도를 담았어요. 또 인공지능(AI)과 같은 새로운 도구가 우리의 쓰기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질문을 제시해요.



실사화



“내가 사랑한 캐릭터, 눈 앞에서 만나다”

전 세계적으로 ‘실사화’는 이미 대세!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등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이 실제 배우와 연출로 다시 태어나 새롭고 색다른 묘미를 선사하죠.

성공이 보장된 스토리 +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
+ 작품의 입체감을 더하는 연출

이 3가지가 만나 성공적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실사화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덕분에 작품이 일단 흥행하면, 자연스럽게 실사화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대세가 되었답니다. 원작의 감동을 더 깊게! 주목할 만한 실사화 공연 추천할게요.



실사화된 작품의 생생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공연 추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뮤지컬 첫 내한 공연

전시 기간 2026.1.7 ~ 2026.3.22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서울)

특징 제75회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 베를린 영화제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명작,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뮤지컬의 첫 내한 공연이에요.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오리지널 연출가 존 케어드가 연출을, 히사이시 조가 라이브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았어요.



“기록 세우기 대신 추억을 위해 달리는, 로컬 러닝의 시대”

마라톤 인구 천만 시대. 대한민국은 사계절 내내 러닝 열기로 가득합니다. 최근 러닝 문화는 기록 경쟁을 넘어 지역의 색과 이야기를 함께 경험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함께 모여 달리는 ‘경험’ 자체를 즐기고, 기록보다는 추억을 남기려는 러너들이 늘어나면서 러닝은 하나의 로컬 문화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영월 옥수수런, 의성 마늘 마라톤처럼 지역 특산물을 전면에 내세운 대회부터, 마을 풍경과 일상을 코스로 담아낸 러닝 이벤트까지, 달리기는 곧 그 지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하는 방식이 됩니다. 건강도 챙기고, 여행처럼 지역의 매력을 느끼며 사람들과 추억을 나눌 수 있다면, 안 될 이유가 없겠죠!



재미와 추억, 특별한 선물까지 받을 수 있는 마라톤 추천!

<2026 성주참외 전국마라톤대회>

기간 2026.3.8

대회 장소 성주별고운동장

신청 기간 2025.12.17 ~ 2026.1.30

참가 종목 5km / 10km / 하프 / 30km

특징 각 코스별 등수에 따라 푸짐한 상금과 상당한 성주 참외를 경품으로 제공합니다!

AI로 진화하는 2026 이동의 미래

AI와 결합한 모빌리티는 단순히 이동을 돕는 기술이 아니라 일상과 취향을 반영하는 라이프스타일로 자리잡고 있다. 어떻게 이동하느냐가 편리함을 넘어, 개인화된 경험과 특별함을 담아내는 모빌리티 시대가 열리고 있다. 더욱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는 모빌리티 기술을 함께 살펴보자.



디지털 콕핏 혁신

차 안이 나의 세컨드 리빙룸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스마트 기기이자 개인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대시보드를 가득 채웠던 수많은 물리 버튼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넓어진 디스플레이가 대신하며 조작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운전자 취향과 사용 습관에 맞춰 화면을 구성하는 맞춤형 UI·UX(사용자 화면 구성)도 고도화되며, 차 안은 점점 '나만의 공간'에 가까워지고 있다. 주행 정보와 엔터테인먼트를 통합한 디지털 *콕핏에는 AI 기술이 적극 도입되며, 일정·날씨·도로 상황 안내는 물론 음성 명령을 통한 차량 제어가 가능하다.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2025년 CES에서 공개된 BMW의 '파노라믹 iDrive'다. 파노라믹 iDrive는 차량 내

부의 시각적 경험을 새롭게 설계한 차세대 디지털 인터페이스로, 가장 큰 특징은 이중 구조의 헤드업 디스플레이(HUD)다. 앞 유리 하단 영역을 따라 펼쳐지는 '파노라믹 비전'에는 속도, 안전 경고, 주행 보조 등 핵심 정보가 넓고 선명하게 표시된다. 그 위에는 3D HUD가 더해져 내비게이션 경로, 차선 변경 안내, 주행 보조 상황을 입체적인 그래픽으로 보여준다. 이 구조 덕분에 운전자는 계기판을 내려다보지 않고도 시선을 도로에 둔 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스티어링 휠에는 버튼을 누를 때 미세한 진동으로 반응을 알려주는 햅틱 피드백(촉각 반응) 기능이 적용돼, 시선 이동 없이 주요 기능을 조작할 수 있다.

* 콕핏이란 운전자가 정보를 확인하고 차량을 조작하는 '조종 공간' 전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항공기의 조종석을 자동차에 적용한 표현이다.

B2B 자율주행

한계를 뛰어넘는 스마트 물류 혁명

자율주행 기술은 물류 현장을 더 빠르고 더 안전하며 더 효율적으로 바꾸고 있다. 차량 스스로 최적 경로를 찾고 차선을 변경하며 신호를 인식해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진화했다. 이는 물류 산업의 오랜 난제였던 운전자 피로·안전 문제·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비용 절감 + 시간 예측 가능성이라는 성과를 함께 만든다. 미국 기반 스타트업 오로라(Aurora)는 화물 운송에 특화된 *Level 4 자율주행 트럭 플랫폼을 통해 실제 물류 현장에서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AI가 학습하면서 지속적으로 정교해지고 있어, 자율주행은 이제 물류 운영 방식을 재설계하는 핵심 도구가 되고 있다.

* Level 4 자율주행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특정 조건과 구역 내에서는 차량이 스스로 주행을 완수할 수 있는 단계다. 이 단계의 트럭이 물류망 곳곳에 투입되면, 자율주행은 개별 차량 기술을 넘어 물류 운영 방식을 통째로 재설계하는 인프라 기술이 된다.



몰입형 모빌리티

시각 연출부터 소비 플랫폼까지!

자율주행 기술이 성숙 단계로 접어들면서, 자동차는 운전 중심의 공간에서 탑승자 경험을 설계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운전 개입이 줄어들수록 시선의 여유가 생기고, 차량의 정보 표시는 전달을 넘어 경험을 연출하는 영역으로 확장된다. LG전자의 AI 캐빈 플랫폼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이다. 차량 내외부 카메라와 AI를 결합해 주행 환경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자율주행 상황에 맞는 몰입형 시각 연출을 구현한다. AI는 도로 주변 환경을 분석해 이동의 순간을 하나의 경험으로 완성한다.



벗꽃이 핀 도로에서는 흩날리는 꽃잎 이미지를, 반복되는 터널 구간에서는 숲이나 자연 풍경을 전면 유리에 겹쳐 보여주는 방식이다. 실제 풍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주행 구간의 감각을 보완하는 시각적 레이어를 더하는 개념이다.

또한 차량 내부 카메라는 탑승자의 시선을 분석한다. 외부 전광판의 특정 광고에 시선이 머무르면, AI는 해당 제품 정보를 중앙 디스플레이에 자동으로 띄운다. 원할 경우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다. 차량을 이동 수단이 아닌 실시간 정보·커머스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AI는 창밖 풍경을 인식해, 해당 장소와 연관된 개인 사진을 창문 디스플레이에 재생한다. 탑승자가 원할 경우 이를 보며 가족과 영상 통화를 연결해 추억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수어와 자막이 동시에 제공되는 기능은 차량 AI가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소통을 돕는 도구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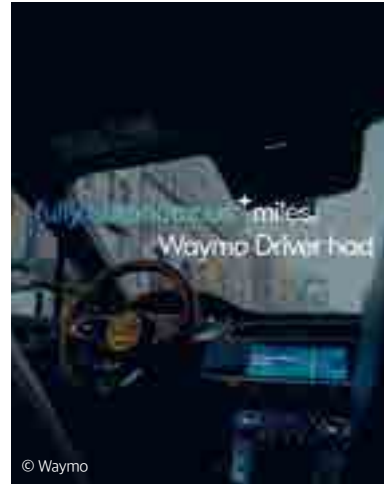
로보택시

이동을 넘어 새로운 경험의 현장

구글 자회사인 자율주행 자동차 기업 웨이모(Waymo)를 선두로, 아마존의 죽스(Zoox), 테슬라 등 여러 기업들이 로보택시 상용화 경쟁을 펼치고 있다. 현재 일부 도시는 운전자 없이도 지정 구간을 자유롭게 운행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Level 4)에 도달했다.

로보택시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이동 경험 자체를 재정의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운전자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으며, 승객은 이동 중에 업무·휴식·오락 등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순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몰입형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다.

웨이모는 2020년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처음으로 Level 4 로보택시 상용 운행을 시작했다. 로보택시는 아직 제한된 도시 구역 내에서 운행되고 있지만 수년간 실제 운행 데이터와 경험을 누적하며 AI의 판단 능력과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이는 로보택시 산업의 기준점이자 본격 상용화의 신호탄이며,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26년 모빌리티가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어디로 갈까?”가 아니라 “어떤 경험과 가치를 만들며 이동할 것인가?” AI와 손잡은 모빌리티는 개인·기업·도시 전부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지금은 미래 모빌리티의 중심으로 속도를 내야 할 시기다.

V2G(Vehicle to Grid)

이동과 에너지를 함께 관리하는 친환경 전기차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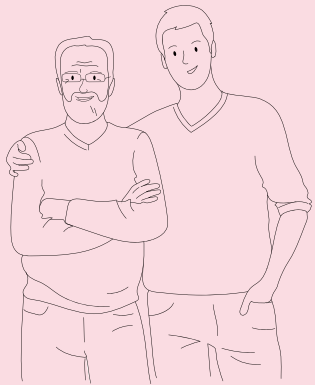
전기차(EV)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큰 배터리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 전력망과 연결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배터리를 충전만 하는 기존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 V2G(Vehicle to Grid)다. V2G는 필요할 때는 전력망에서 차량으로 충전하고, 전력이 부족한 시간대에는 차량이 저장한 전기를 다시 전력망에 공급하는 양방향 전력 흐름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밤에는 싼 요금으로 충전하고, 낮에 전력 수요가 몰리면 차량이 전력을 내보내 도심 피크 부하를 줄이는 식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도심 탄소배출을 줄이며, 전력망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국내에서는 현대차가 제주에서 V2G 시범 사업을 진행하며, 실시간 전력 수요와 EV 충·방전의 조율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별도로 AI 기반 자동 충전 로봇을 도입해 충전 위치 파악·주차 보조·자동 커넥터 체결 등, EV 충전 과정의 자동화와 AI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 두 흐름이 만날 때 EV는 이동과 전력 공급을 모두 수행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특히 AI가 V2G 운영에 투입되면, 시간대별 전력 수요 예측, 충·방전 타이밍 계산, 여러 EV의 동시 관리 등이 자동으로 이루어져 도시 전체의 에너지 효율·안정성·탄소 저감 효과가 크게 강화될 수 있다.

소중한 가족에게 전한 특별한 케이크

고마움을 미처 다 전하지 못한 가족, 결을 지켜준 동반자, 오늘을 견디게 한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며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헬로우 넥센>의 케이크 전달 이벤트는 담아두었던 우리의 마음을 건네는 작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창한 말 대신 케이크 하나에 담긴 진심, 그리고 “고마워”라는 인사. 표현하는 순간, 더욱 커져가는 따뜻한 마음이 2026년을 여는 에너지가 됩니다.



긴 시간의 수고에, 이제야 건네는 감사함

참여자 | 제품평가팀 CP제품평가계 김신우 사원



아버지께서 30여 년간 이어온 공직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 단 한 번뿐인 순간을 어떻게 남기면 좋을지 고민하던 중, 가족 이벤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퇴직을 특별하게 기록하고 싶은 마음에 조심스레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근무 중 케이크 사연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 하실 아버지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깜짝 선물을 하고 싶어 아버지께는 알리지 않고 어머니와 동생에게만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집에서 케이크를 받으신 아버지는 한참을 바라보시다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평소 속스러워 자주 하지 못했던 말을 케이크를 통해 전하니, 그 미소가 더 오래 남았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여 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그동안 몰랐던 아버지 어깨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제2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준 <헬로우 넥센>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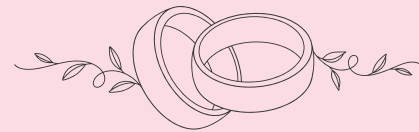
열두 해의 동행, 케이크로 남긴 결혼기념일

참여자 | 개발지원팀 CP개발지원계 서용준 사원



저희는 26살, 24살에 결혼해 12주년을 맞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작한 결혼이라 주변의 걱정도 많았지만, 서로를 믿고 함께 성장하며 두 아이와 지금의 가족을 만들어왔습니다. 이번 이벤트를 보며 늘 가족을 위해 애써 준 아내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집에 케이크를 꺼내 놓자 아내와 아이들 모두 좋아해 줬습니다. 덕분에 이번 결혼기념일은 유난히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거창한 말 대신, 케이크 하나로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벌써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쉽지 않은 순간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함께해 줘서 고맙습니다. 아이들과 우리,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서로를 믿으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보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낀 하루였습니다.





환갑, 그리고 제2의 인생을 향한 다짐

참여자 | YP기업문화팀 총무계 강동환 사원

<헬로우 넥센>에서 보내주신 감사의 케이크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평범하지만 감사한 일상을 함께 살아오며, 가족이 하나 둘 늘어나는 과정을 지켜본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2025년은 제게 특히 뜻 깊은 해였습니다. 환갑을 맞은 해에 평생의 꿈이었던 첫 소설 출판식도 함께 열었습니다. 늦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이뤄낸 만큼 더없이 벅차고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부부만의 환갑 기념 여행을 다녀오며 지난 시간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행지의 풍경보다 더 오래 남은 것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케이크 앞에서 가족과 함께 초를 끄며 다짐했습니다.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서로에게 더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자고. 그날의 마음을 다시 떠올릴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사보를 통해 이런 소중한 계기를 만들어주신 넥센타이어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함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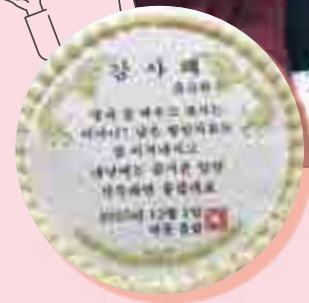
치료의 시간을 건너, 지원을 전하다

참여자 | OE개발기획팀 이지훈 연구원



어머니께서 두 번째 암 진단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진행 중입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치료를 잘 받고 계셔서, 작은 응원과 감동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번 이벤트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케이크를 받으신 어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기뻐하시며 “먹기 아깝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밝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잠시나마 치료의 부담을 잊고 웃으시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직 남은 항암 치료가 있지만, 이 시간을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기를 가족 모두가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케이크 안에는 건강을 바라는 마음과 함께 견뎌온 시간에 대한 위로 담았습니다. 이런 따뜻한 이벤트를 통해 가족에게 의미 있는 순간을 선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치료도 잘 마무리하고,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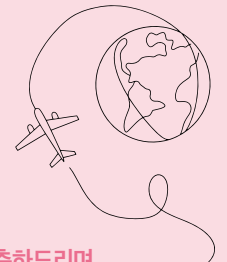
미국에 있지만
마음만은 함께!



늘 그리운 어머니의 칠순을 축하드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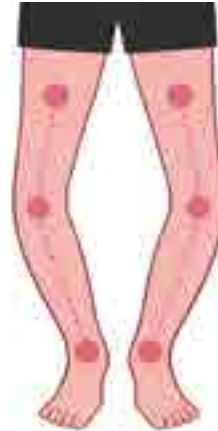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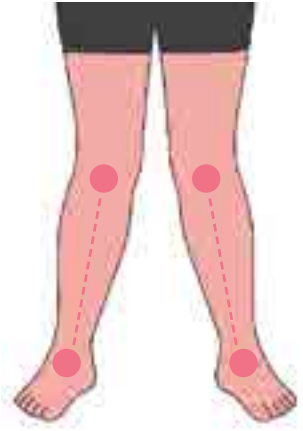
참여자 | (미)마케팅담당 (미)CS파트 김형울 파트장

어머니께서 칠순을 맞이하셨습니다. 해외 주재원 생활로 인해 가족 모임에는 참석하지 못해 아쉬워하던 차에, '레터링 케이크 이벤트'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헬로우 넥센을 통해 몸은 멀리 있지만 특별한 케이크로 어머니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정신없이 보내던 회사 생활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표현이 서툰 아들인데, 짧은 글로나마 어머니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곁에 계셔서 주셔서 늘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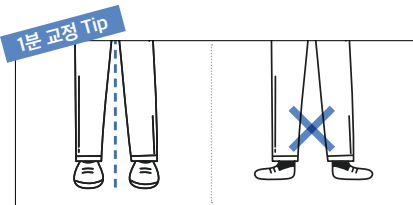
신발 밑창이 알려주는 내 몸의 균형

한 걸음을 걸을 때 발에 가해지는 힘은 평균적으로 체중의 1.5배다. 발바닥은 이 압력을 분산시키며 지면으로부터 오는 충격 또한 흡수한다. 발이 단단히 서야 무릎이 안정되고 골반과 척추가 바로 서는데, 걷는 자세가 잘못되면 발은 물론 무릎과, 발목, 허리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 나의 신발 밑창이 보내고 있는 건강 신호를 알아보자.



밑창 '안쪽'이 많이 닳는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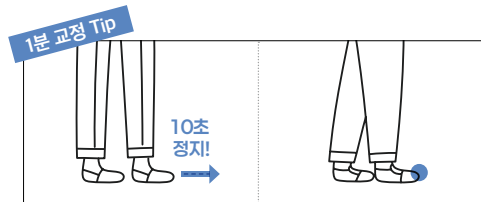
이 경우에는 발·무릎·허벅지가 안쪽으로 모아지는 '안짱걸음'일 가능성이 높다. 안짱걸음은 걸을 때 다리가 10~15도 안쪽으로 회전해 무릎끼리 닿거나 발끝이 부딪히며 넘어질 위험도 커진다. 또한 장기간 지속되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쌓여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다.



- 서 있을 때 무릎과 발끝의 방향을 일직선으로 맞추기
- 억지로 발끝을 바깥으로 돌려 걷는 것은 금물! (고관절과 무릎에 부담을 준다)

밑창 '바깥쪽'이 많이 닳는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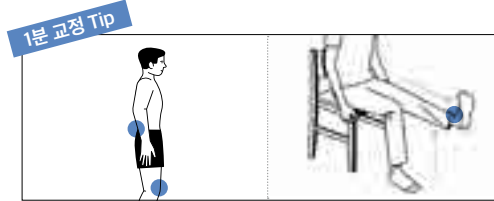
안쪽과 반대로 바깥쪽이 닳아 있다면 팔자걸음으로 걷고 있는 경우가 많다. 팔자걸음으로 걸으면 상체가 뒤로 젖혀지면서 허리와 척추에 부담을 주고, 지속되면 허리 디스크나 퇴행성 허리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팔자걸음을 하는 사람은 'O자 다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O자 다리'는 안짱다리와 반대로 무릎이 바깥으로 편중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무릎 관절염을 야기한다.



- 서 있을 때 양 발끝을 정면으로 맞추고 10초 정지하기
- 걸을 때 발바닥 안쪽 엄지발가락 라인에 체중을 살짝 두고, 무릎을 스치면서 걸어 보기

밑창 '앞쪽'이 많이 닳는다면?

앞쪽이 많이 닳는 이유는 다양하다. 굽이 높은 신발·하이힐 착용, 등이 구부정해 상체가 앞으로 쏠린 자세, 발목을 위·아래로 부드럽게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신경·근력 문제 가능) 등이다. 특히 발을 안쪽으로 향하도록 발목을 접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주로 발등을 치켜세워 걷는데, 이때 발 앞으로 무게가 쏠리게 된다. 이 경우 무릎이 굽힌 상태로 걷기 쉬워 무릎 연골 통증이 생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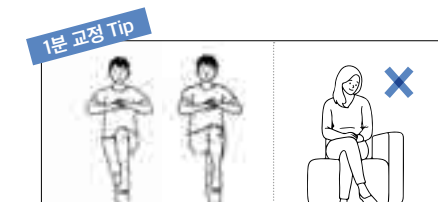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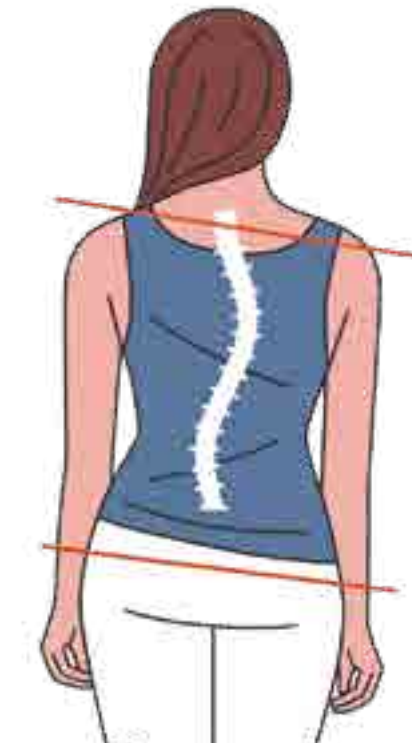


- 서 있을 때 골반은 살짝 앞으로 세우고, 무릎도 1cm 편다는 느낌으로 상체 펴기
- 앉아서 발 앞 부분을 들어 올려 발목을 자신 쪽으로 꺾는 동작을 반복하며 발목의 힘 기르기



양쪽 중 '한쪽' 밑창만 유독 닳는다면?

오른쪽 혹은 왼쪽 한쪽만 유독 닳았다면, 척추·골반의 균형이 틀어진 상태일 수 있다. 척추가 휘거나 골반이 틀어지면 다리 길이가 달라지면서 양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 또한 비대칭이 된다. 선천적으로 다리 길이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바르지 못한 자세가 원인이다. 거울 앞에서 양쪽 어깨·골반 높이를 확인해 보자.



- 오른쪽 왼쪽에 번갈아 가며 체중을 50:50으로 분산해 10초 동안 서있기
- 장시간 앉아 있을 때 다리 꼬기 금지!

요즘 K-컬처, 어디서 놀고 뭘 들고 나오나 봤더니

K-컬처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방식도 변했다. 예전엔 “어떤 드라마 봤어?”였다면, 요즘은 “거기 가봤어?”, “그 굿즈 아직 있대?”다. 콘텐츠는 이제 화면을 벗어나 동네가 되고, 물건이 되고, ‘다녀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이 됐다. 그래서 요즘 K-컬처를 보려면 지도와 쇼핑백을 먼저 봐야 한다.

①

GRAND REOPENING

무신사 스탠다드
홍대 플레그십 스토어



musinsa standard

②

왜 다들 성수로 모일까? 답은 ‘경험형 팝업’

성수가 K-컬처의 중심지로 떠오른 데에는 분명한 출발점이 있다. BTS의 글로벌 성공 이후 본격화된 아티스트 전시형 팝업 문화다.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 SEOUL POP-UP》와 같은 전시는 앨범과 공연의 세계관을 공간으로 확장하며, “콘서트 못 가면 성수 간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냈다. 하지만 요즘 성수로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경험’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라부부의 수상한 편의점’ 팝업이다. 라부부를 편의점 콘셉트의 공간으로 풀어낸 이 팝업은 굿즈 때문이 아니라, 공간 곳곳에 촘촘히 설계된 포토존과 설정 덕분에 이슈가 됐다. ‘Allday Project EP’ 발매 기념 팝업도 음악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대형 오브제와 영상, 포토존이 결합되면서 팝업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가 됐다.

아이돌 다음! 취향의 본거지 ‘홍대·연남’

홍대·연남은 “오늘 공연 뭐 해?”를 묻지 않아도 충분히 음악적인 동네다. 거리 곳곳에서 클럽 포스터, 공연 대기 줄, 버스킹 소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공연을 보지 않아도 “음악이 흐르는 동네”라는 감각이 먼저 온다. 외국인들이 소비하는 것도 공연 한 편이 아니라 하루 루트다. 홍대 거리를 걷고, 엔트러사이트 홍대점이나 카페 오르막에서 쉬며, Musinsa Standard 홍대점을 구경한다. 이후 연남으로 넘어가 프린츠 연남과 경의선숲길을 따라 산책한다. 산책하며 하루짜리 K-컬처 체험 공간이 된다.

트렌드를 이끄는 골목 ‘부산 전포 카페 거리’

전포 카페 거리는 부산의 오래된 주택가에서 시작됐다. 프랜차이즈보다 주인장의 취향이 반영된 공간들이 밀도 있게 모여 관광지라기보다 로컬에 가까운 분위기다. 간판, 인테리어, 음악까지 개성이 뚜렷해 K-라이프스타일을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어 ‘진짜 부산’을 경험하고 싶은 외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낮에는 햇빛과 식물, 밤에는 조명과 음악이 부각되어 밤낮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또 커피, 디저트, 와인바, 소형 편집숍 등 장르의 경계가 없어 서울 성수의 에너지를 부산 식으로 재해석한 공간이라 해도 과장이 아니다. 전포 카페 거리는 ‘한국 동네’에서 오래 머물고 싶은 사람들이 찾는 골목이자, 지금의 부산을 솔직하게 담은 장소다.

①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팝업 (성수동) ©HYBE MERCH SNS

② 무신사 스탠다드 홍대점 ©무신사

③ 라부부 수상한 편의점 팝업(성수동) ©서울여행 공식 SNS

④ 부산 전포 카페 거리 ©OPENHOUSE SEOUL



③



④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뭇즈(MU:DS)

국립중앙박물관 뭇즈 코너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없이 이어진다. 전통 굿즈라기보다 “이거 뭐야?” 하고 한 번 더 보게 되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건 풍속화 속 술 취한 선비를 모티브로 한 변색 술잔이다. 술을 따르면 선비의 얼굴이 술에 취한 것처럼 붉게 변한다. 자연스럽게 “이거 재밌네”라는 말이 나온다. 외국인 방문객들 역시 박물관 굿즈라기보다 이야기거리 하나 얻은 소품처럼 받아들인다. 실제로 쓰는 사람도 많고, 선물용으로 집어 가는 경우도 잦다. 반가사유상의 얼굴만 살린 미니 오브제나, 전통 그림의 한 장면을 크롭한 문구류, 민화 속 동물을 단순한 패턴으로 풀어낸 소품들 역시 “전통이라서”보다 “그냥 예뻐서” 고르게 된다. 뭇즈는 전통을 설명하기보다, 손에 들었을 때 바로 이해되는 재미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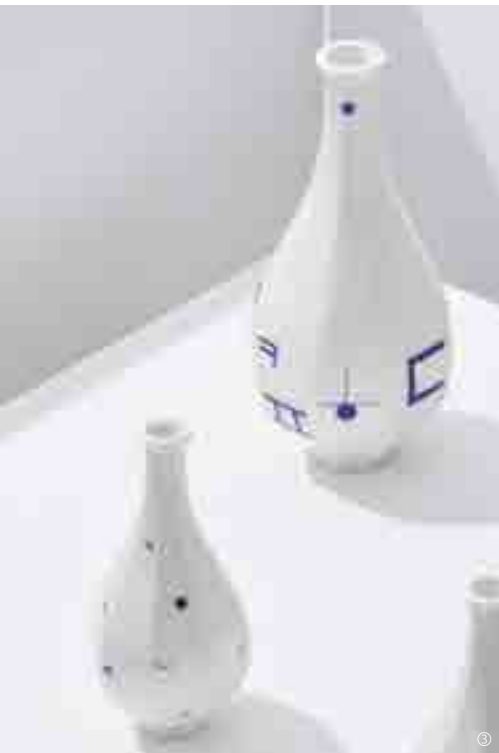
읽는 문자를 넘어, 들고 다니는 그래픽 ‘한글’

한글 디자인 굿즈의 인기는 특정 가수 한 팀의 영향이라기보다, K-팝과 K-컬처 전반의 글로벌 확산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흐름에 가깝다. 음악과 영상 콘텐츠를 통해 한글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해외 소비자들은 한글을 ‘읽는 언어’보다 ‘보는 문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직선과 곡선이 어우러진 자음과 모음은 뜻을 몰라도 그래픽 요소로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잘 팔리는 제품들도 설명이 필요 없다. 한글 자음 패턴 에코백, ‘ㄱㄴㅇ’ 포스터, 옛한글 서체 노트와 문구류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디자인 숍에서 꾸준히 판매된다. ‘서울’이나 ‘한국’을 직접 쓰지 않아도, 한글 자체가 곧 국가 이미지를 대신한다. 한글은 이제 읽는 글자가 아니라, 들고 다니는 K-컬처 아이콘이 됐다.

호랑이가 귀여워! 민화·전통 문양 굿즈

민화 굿즈, 특히 호랑이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소비되기 시작한 데에는 분명한 계기가 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다. 이 작품은 한국 전통의 호랑이와 도깨비를 무섭거나 낯선 상징이 아니라, 밝고 캐릭터화된 세계관으로 풀어냈다. 이후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 전통 = 힙하고 귀여운 스타일’이라는 인식이 빠르게 퍼졌다. 이 변화는 민화 굿즈 소비로 이어졌다. 민화 호랑이 쿠션, 호작도 포스터, 까치호랑이 엽서 세트 같은 제품들은 더 이상 전통 기념품이 아니라 캐릭터 굿즈에 가깝게 받아들여진다. 강렬했던 상징은 부드러워졌고, 위엄은 친근함으로 바뀌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유물 같다” 대신 “귀엽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다”고 반응하는 지점이 바로 성공의 이유다. 민화는 이렇게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현대화됐고, 전통은 부담 없이 소비되는 K-컬처가 됐다.

- ① 호랑이와 갯 등을 소재로한 K-문화상품 공모작 ©국가유산진흥원
- ② 술 취한 선비 변색 술잔 ©뭇즈
- ③~④ 한글을 모티브로한 작품들 ©국가유산진흥원 ©뭇즈
- ⑤ 불하트하고 있는 반가사유상 ©뭇즈
- ⑥ 민화 속 호랑이와 꽃을 소재로한 가방 ©올아트



ISSUE 01



34년 연속 무분규 성과로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넥센타이어가 2025년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노사문화대상은 고용노동부가 1996년부터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에 수여하는 상으로, 국내 노사관계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는다. 수상 기업은 최근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와 사례 발표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넥센타이어는 노사가 서로를 동반자로 인식하며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노사는 탄력적인 공장 운영과 경영상황을 고려한 임금협상 등을 통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았다. 이러한 신뢰와 협력의 문화는 34년 연속 무분규라는 독보적인 성과로 이어지며, 넥센타이어만의 성숙한 노사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정기적인 경영현황 설명회를 통해 투명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강화하고, 상시 실무 교섭 체계를 운영해 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해 왔다. 교섭 외 사안 역시 노사협의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율하며 건강한 교섭 문화를 정착시켜 왔다.

이와 함께 사내 제안제도와 '분임조' 활동을 활성화해 현장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임직원 만족도 조사 정례화,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이러한 노사 협력은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번 대통령상 수상은 노사가 한 뿌리라는 철학 아래 서로 믿고 협력해 온 수십 년간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이다. 넥센타이어는 앞으로도 인재 육성과 노동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며 건전한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분임조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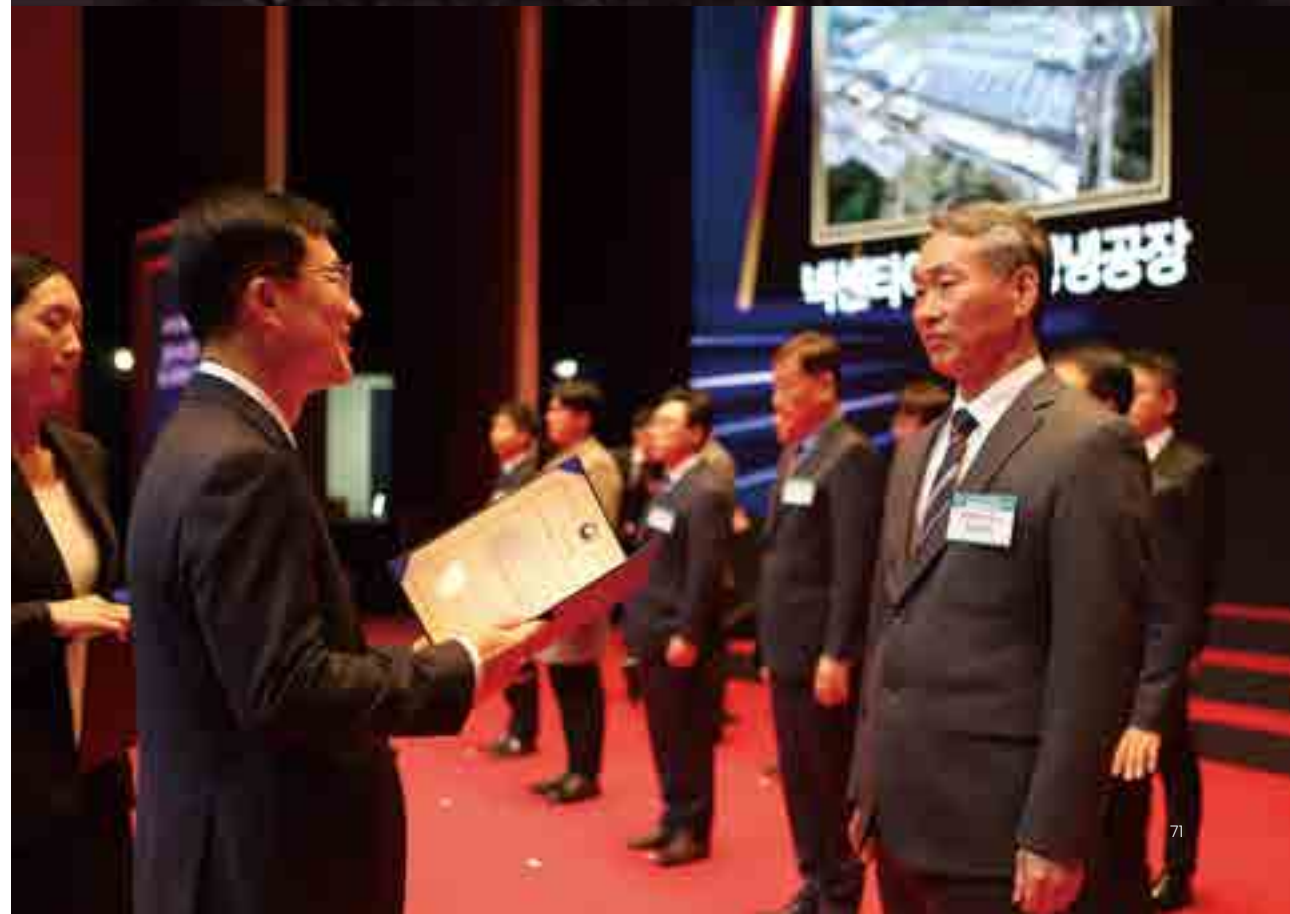
넥센타이어는 2025년 8월 25일 진행된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구.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다.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는 혁신적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현장 문제를 해결해, 국가산업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지식 기반형 '우수 분임조'를 발굴 육성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발표 대회다. 넥센타이어는 '전국 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 15년 연속으로 출전해 대통령상을 수상해 왔다.

지나해는 양산공장 PCR파트 '미래를 분임조'가 자유형 식(제조) 부문에서 대통령 은상을 수상하였으며, 창녕

공장 물류운영팀 '거북이 분임조'가 사무간접 부문 대통령 금상, 품질검사팀 '나비효과 분임조'는 빅데이터 AI 부문 대통령 금상, 생산팀 정련파트 '따오기 분임조'가 현장개선 부문 대통령 은상을 수상하며 종합성적 금상 2개, 은상 2개를 수상했다. 또한 개회식 시상식에서는 창녕공장 김종호 TPM파트장이 품질분임조 운영 및 혁신사례 포스터 공모전 국가기술표준원장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한편, 2026년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는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넥센타이어의 최고를 향한 도전은 계속될 예정이다.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

품질경쟁력우수기업



ISSUE 03



2025 머니투데이 IR 대상 최우수상 수상

넥센타이어가 '2025 머니투데이 IR 대상'에서 경기소비재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머니투데이 IR 대상은 우수한 IR활동을 한 기업을 발굴해 시상하는 수상 제도로,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증권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수상 기업을 선정한다. 심사위원회는 넥센타이어가 2023년 5월 IR 전담조직 신설 이후 시장과의 소통 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편해 온 점, 투자자 친화적 정보공개를 통해 정보 비대칭 해소에 기여한 점 등을 높게 평가해 경기소비재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넥센타이어는 ▲투자자 친화적 IR Mindset 정착 ▲경영진 참여 확대 ▲IR 콘텐츠의 질적 고도화 ▲온·오프라인 투자자 접근성 확대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 왔다. 특히, 시장 내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해 타이어 산업 및 글로벌 수요 흐름 등 주요 데이터 포함한 Fact Sheet를 제공하고, 이를 정례화해 IR 투명성을 한 단

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기 실적발표회, 산업시찰 및 R&D Infra 투어 등 다변화된 IR 프로그램을 통해 온·오프라인 IR 미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업종 내 최다 수준인 17개 증권사 커버리지를 확보한 것도 수상 배경으로 꼽힌다. 또한, IR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IR 접근성을 확대하였으며, 잠재 투자자용 기업설명 자료(Factbook)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나아가, 소수주주 IR Hotline 및 온라인 Q&A 페이지를 운영해 소수주주의 접근성을 높였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IR은 단순히 수치를 전달하는 영역이 아니라, 시장과 회사 간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투자자 친화적 정보공개와 정교한 시장 인사이트 제공을 지속 확대해, 글로벌 타이어 산업 내에서 당사 핵심 경쟁력을 더욱 투명하게 전달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ISSUE 04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연계 산학협력 프로젝트 추진

넥센타이어는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일류 디자인 양성 사업(KDM+)과 협력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주관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참여 학생들은 중앙연구소 디자인혁신파트와 실제 기업 과제를 수행하며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디자인 역량을 강화했으며, 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잠재 인재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5년 상반기에는 그룹사 (주)넥센의 신사업 분야인 파크골프공 브랜드 및 패키지 디자인 협업을 진행했다. 기존 골프 브랜드인 '세인트나인(Saintnine)'의 브랜드 콘셉트를 유지하면서도 파크골프 시장에 맞는 차별화된 디자인을 제안하는 프로젝트다. 학생들은 조별 협업을 통해 신규 로고 및 새로운 방식이 적용된 패키지 디자인을 개발했으며, 우수작으로 선정된 디자인은 실제 제품 적용도 검토될 예정이다. 2025년 하반기에는 넥센타이어 기술 아이콘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성능을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일관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가진

30종의 기술 아이콘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학생들은 아이콘 디자인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홍보물, 굿즈 등 아이콘이 적용된 다양한 샘플을 제작하여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였다. 넥센타이어는 앞으로도 산학 협력 및 대외 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미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ISSUE

WELCOME TO
NEXEN univer CITY

싼타페 MX5 패밀리 동호회 여러분의
넥센타이어 중앙연구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NEXEN
NEXEN TIRE



05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자동차 동호회 초청 행사

넥센타이어는 매년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27일 더넥센유니버시티에 자동차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동호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넥센타이어를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사옥 및 연구 시설 투어,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체험, 타이어 개발 과정 소개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싼타페 MX-5 패밀리 동호회원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브랜드 친밀도를 높이고, 넥센타이어의 기술력과 신제품을 보다 가깝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더넥센유니버시티 사옥 투어로 문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1층 로비와 직원 복지시설을 둘러보며, 넥센타이어의 일상적인 업무 환경을 먼저 마주했다. 이후 무향실, 음향분석실, 재료마찰연구실 등 핵심 연구시설을 둘러보는 시간도 진행됐다. 짧은 투어였지만 곳곳에 담긴 기업 철학을 확인했고, 연구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는 경험은 넥센타이어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이후에는 제품 개발의 과정과 타이어 관리법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기술 세미나가 이어졌다. 차량동역학팀, RE 개발팀, 한국고객만족실 등 각 분야 담당자들이 직접 나서 타이어 개발 과정과 최신 기술,

그리고 실질적인 타이어 관리 방법을 설명했다.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체험은 특히 반응이 뜨거웠다. 이론으로만 듣던 기술이 실제 주행 감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체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기술 설명이 어렵지 않고,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됐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이 인상 깊었다는 평가다.

행사 후반에는 제품 관련 Q&A 시간이 마련됐다. 사전 준비된 질문뿐 아니라 현장에서 즉석으로 질문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EV 공용 타이어 전략, 타사 대비 기술 차별점, 실제 사용 시 체감 성능 등 다양한 내용이 오고 갔다. 행사 종료 후에는 “구매 리스트에 넥센타이어가 추가됐다”, “타사와 다른 EV 공용 전략에 대해 알게 됐고 긍정적인 인식이 생겼다” 등의 긍정적인 후기가 이어졌다.

이번 동호회 초청 행사는 브랜드를 설명하는 자리를 넘어 직접 경험하게 하는 자리였으며, 넥센타이어는 이날 행사를 통해 얻은 생생한 고객 반응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을 초청해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NEWS

2025년 넥센타이어 결산 소식

2025.03.17

전기차·내연기관 모두 최적의 성능으로 만족시키는 '원타이어' 전략으로 차별화

넥센타이어가 동일한 제품으로 전기차와 내연기관 모두에 적합한 성능을 제공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경쟁사들이 전기차 전용 브랜드를 내세우는 것과 달리 차별화된 모습이다.



2025.04.01

타이어 렌탈 서비스 '넥스트레벨' 누적 판매 200만 본 돌파

넥센타이어는 타이어 렌탈 서비스 '넥스트레벨(NEXT LEVEL)'이 누적 판매 200만 본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넥스트레벨'은 넥센타이어가 2015년 업계 최초로 선보인 타이어 렌탈 기반의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다.

2025.04.09

핀란드에 겨울용 타이어 시험 센터 설립

넥센타이어가 핀란드 이발로 UTAC 주행 시험장 내에 전용 타이어 시험 센터를 설립하며 연구 개발 역량 확대에 나선다. 이번 시험 센터는 겨울용 타이어의 성능 테스트와 연구 개발을 한층 강화하는 기반이 될 예정이다.



2025.06.27

'타이어 유통 혁신'으로 6년 연속 국가서비스대상 수상

넥센타이어의 타이어 렌탈 서비스 '넥스트레벨(NEXT LEVEL)'이 '2025 국가서비스대상' 타이어 종합서비스부문에서 6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국가서비스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단법인 산업정책 연구원이 주관하는 상이다.

2025.07.14

글로벌 ESG 평가에코바디스 2년 연속 '골드' 등급 획득

넥센타이어가 글로벌 지속가능성 조사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dis)의 ESG 평가에서 '골드' 등급을 2년 연속 획득했다. 에코바디스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ESG 평가 기관으로, 환경, 노동·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이행 수준을 평가한다.



2025.08.27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도입... VR·AI 활용 개발 강화

넥센타이어가 서울 미국 중앙연구소 더넥센유니버시티에 '드라이빙 시뮬레이터(Driving Simulator)'를 구축하고 오픈식을 개설했다. 이는 국내 업계 최초의 High Dynamic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도입 사례로 VR·AI 기술을 활용한 타이어 연구개발 강화의 주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01

유럽·중남미·중동에 새 거점, 글로벌 성장 동력 강화

넥센타이어가 유럽·중남미·중동 등 주요 전략 시장에서 신규 지점과 법인 설립을 추진했다. 이번 확장은 타이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서 시장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려는 전략적 투자다.



2025.09.22

SBTi 온실가스 감축목표 승인 획득

넥센타이어가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이하 SBTi)로부터 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승인을 획득했다. 이는 넥센타이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적 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한 결과다.

2025.09.26

AI·자동화 성과 인정받아 '2025 한국경영대상' 수상

넥센타이어 김현석 사장이 '2025 한국경영대상'에서 CEO 분야 생산 관리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AI와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4개 생산 거점에서 체계적인 품질·안전 관리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2025.11.04

국내 최정상 레이싱 대회 '타이어 제조사 챔피언' 3연패 달성

넥센타이어가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2025 오네 슈퍼 레이싱 챔피언십'의 <TOYOTA GAZOO Racing 6000> 클래스에서 8라운드 우승, 9라운드 더플 포디움이라는 성과로 최종 9라운드를 마치며 시즌 총점 1위로 2025시즌 종합 '타이어 제조사 부문 챔피언'을 달성했다.

2025.11.20

'품질 경쟁력 우수기업' 5년 연속 선정

넥센타이어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5년 연속, 화학 분야 '품질 경쟁력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품질 경쟁력 우수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상이다.



2025.12.02

전기차·내연기관 구분 없는 'EV 루트'로 국내시장 강화

넥센타이어가 지난 3월 전기차와 내연기관 모두에 최적의 성능을 제공하는 '원타이어' 전략을 공식화한 이후 'EV 루트' 기술이 적용된 '엔페라 슈프리미(N'FERA Supreme)'와 '엔프리즈 S(N'PRIZ S)'를 연이어 출시하며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EV 루트는 내연기관은 물론 전기차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 타이어에 부여되는 넥센타이어 전용 인증 마크다. 'EV 루트'가 각인된 제품은 세단부터 SUV, 내연기관과 전기차, 하이브리드까지 차종 구분 없이 뛰어난 퍼포먼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OE 신차용 타이어(OE) 공급 소식 모음



- 현대차 플래그십 SUV 팔리세이드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 스코다 SUV 카록 신차용 타이어 공급
- 기아 첫 전기 세단 EV4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 기아 픽업트럭 '타스만'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 현대 수소차 '디올 뉴 넥쏘'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 기아 글로벌 전략 차종에 신차용 공급 확대
- 시트로엥 C5 · C5에어크로스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 기아 첫 목격기반차량 'PV5' 신차용 타이어 공급
- 기아 전기 SUV 'EV5'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AWARD 디자인 어워드 수상 소식 모음



- 美 '그린 굿 디자인 어워드' 2관왕
- 겨울용 타이어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5 본상 수상
- 미래형 콘셉트 타이어 2종 'IDEA 디자인 어워드' 수상





2026년 <헬로우 넥센> 신년호를 내며

사보 편집자를 맡으며 설렘만큼이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쁜 여러분의 시간을 잠시라도 붙잡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사보는 편집자 혼자 만드는 책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를 빛내고 있는 우리의 시간을 한 권으로 정리한 기록이란 것ですよ.
사보 덕분에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최전선에서 마주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헬로우 넥센> 독자들이 2026년의 첫 사보를 넘기면서
"아, 이게 우리 이야기네"하고 공감의 미소를 짓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사보가 우리 사이를 잇는 가장 따뜻한 통로가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천천히 그리고 풍성하게 채워가겠습니다.



<헬로우 넥센> 담당자 신혜리 올림

<헬로우 넥센> 신년호 이벤트 참여

<헬로우 넥센>
웹진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하단의 QR 코드 스캔하기



이벤트 참여하기



인적사항 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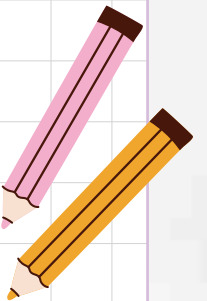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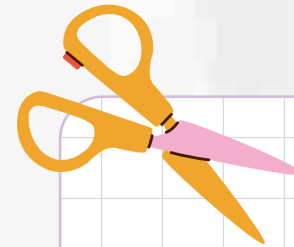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기프티콘 증정)

당첨자 확인과 상품 발송을 위해
성함,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헬로우 넥센> 패밀리 페이퍼카 챌린지!

종이를 오리고, 색을 칠하면 꿈의 자동차가 현실이 되는 순간!
넥센인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페이퍼카 만들기~
2026년, 우리 가족의 상상력과 개성을 가득 담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멋진 스포츠카를 완성해주세요!



이벤트 기간 2026년 1월 5일(월) ~ 1월 30일(금)

경품 신년호 이벤트 당첨자 5명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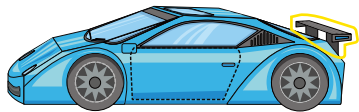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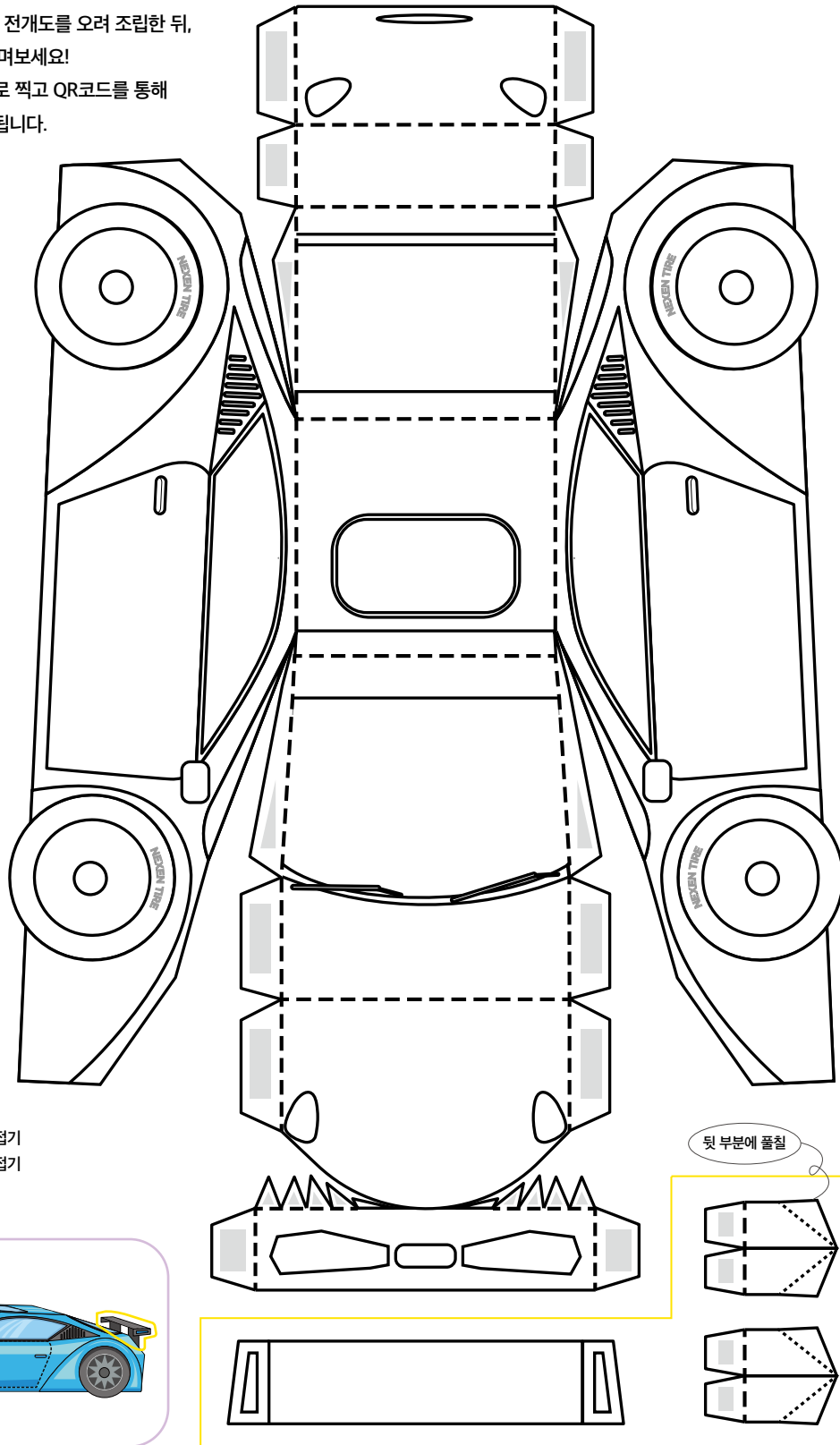
하나 더!

올해 발행되는 총 4개의 자동차를 모두 모아 12월 연말에 인증사진을 보내주신
열성 독자님께는 어마어마한! 스페셜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만든 자동차는 사보와 함께
모아서 연말에 인증할 수 있도록 간직해주세요~



참여 방법

<헬로우 넥센> 속 자동차 전개도를 오려 조립한 뒤,
나만의 컬러로 멋지게 꾸며보세요!
완성된 자동차를 사진으로 찍고 QR코드를 통해
업로드하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NEXEN NEXEN TIRE
we got you

NEXT LEVEL

타이어 교체만이 아니라, 관리까지 도와주는

넥스트레벨 렌탈

새해맞이 리뉴얼

넥스트레벨 임직원 프로모션

임직원 혜택 추가

4톤 렌탈 시

2톤 렌탈 시

임직원
혜택

GS칼텍스 e-mart

주유상품권

50,000원

GS칼텍스 e-mart

주유상품권

20,000원

발송일자: 타이어 교체 완료한 다음 달 중순

※ 임직원 전화번호로 주유상품권 발송

구매자
혜택

GS칼텍스 e-mart

주유상품권

50,000원

GS칼텍스 e-mart

주유상품권

20,000원

발송일자: 타이어 교체 완료한 다음 달 중순

※ 타이어 교체 고객 전화번호로 주유상품권 발송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찍어서 확인해주세요

